장편실화

인생결차

인 훈

금성청년출판사
주체101(2012)

차　　　례

제 7 장
길은 영원하다

인간은 누구나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리라.

특히 인생의 말년에 이르면 누구나가 지나온 그길에 대해 후대들에게 교훈삼아 또는 자랑삼아 터놓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자기의 지나온 길에 대해 조만간에 말하지 않는 성격이였다. 말한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였다.

만약에 그가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에 대해 그리고 자기가 해놓은 일에 대해 좀 더 성실하게 나에게 들려주었다면 이 책이 이처럼 빈약해지지는 않았을것이다.

물론 빈약하게 번져지고있지만 그나마를 위해서도 나는 때로 그에게 억지로 물어보지 않으면 안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마지못해 대답하군 하였다. 아마도 그것은 자신의 훌륭한 소행에 대해 라렬하는것을 후대들앞에 자기를 내세우는 일로 생각하는것이기때문이였으리라.

사내는 자기의 공로를 코에 걸고 다니지 않는 법이다.

이 세상의 정의로운 사람들은 자기 조국을 위해, 인류를 위해 스스로 바치는 모든 희생을 그렇듯 당연한것으로 여기고있는것이다.

그러한 비슈와나스가 이밤에는 묻지 않는 말을 나에게 또 그리고 옆사람들에게 그냥 한다.

《오늘은 내가 세상에 세번째로 부활한 날이요.》

환희에 넘친 그의 말을 싣고 명절의 불빛이 한껏 어린 보통강의 물결도 끝없이 춤을 추는듯싶다.

2010년 10월 9일 밤이다.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는 오늘의 환희에 대해서 세계의 벗들에게 그냥 말을 하였다.

《우리모두는 행운아들이요!》

저녁늦게 청류관에서 시작된 연회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속에 흐르고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고 금방 돌아온 이들이였으니…

이들모두는 오늘 주체위업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였다.

영광스럽게도 주석단에 초대된 비슈와나스는 줄곧 환하게 안겨오는 또한분의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우러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온 넋이 그이께 쏠리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시줄이 흐르고있었다.

뵈옵는 순간
아, 그이는 태양이시다
광휘로운 빛발로
나의 온몸을 감싸안으시는

그 빛발에 이끌려
저마다 키돋움하며
만세! 만세!
온 장내가 환호로 들끓을 때

그이 뿌리시는 그 빛발로
누리는 밝다
그 빛발에 싸여
모두의 가슴은 젊음으로 약진한다

우러를수록
아, 그이는 태양이시다

한없이 준수하신 그이의 모습
주체위업의 밝은 미래이시다
…

김일성동지의 접견을 처음으로 받던 그날처럼, **김정일**동지앞에 처음으로 나서던 그날처럼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는 태양찬가가 높이 울리고있었다.

그만이 아닌 온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슴가슴에 태양찬가가 끝없이 흐르는 명절전야의 평양의 밤이였다.

청류관이 통채로 환희에 넘쳐 흔들리는것 같았다.

1세신봉자들이 세상에 높이 울린 태양찬가는 오늘 수없이 늘어나는 2세, 3세신봉자들의 가슴가슴에 이처럼 더 높이 울려퍼지고있는것이다.

주체의 태양의 빛발을 받으며 두 세기를 살아오는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삶이 긍지롭게 여겨졌다. 태양의 그 빛발은 그의 삶의 자양분이였다.

비슈와나스는 21세기 10년대가 환희로왔다.

이날을 향하여 줄달음쳐온 2000년대였던가?!

비슈와나스는 새 세기의 지나온 첫 년대를 돌이켜보았으며 이제 향도의 태양이 누리를 밝게 비칠 다음년대들을 내다보았다.

고결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자취는 세월의 이끼에 묻혀지지 않는다.

그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 더 많은 일을 설계했고 더 분발하여 주체의 길을 걸어왔다.

1. 세기가 바뀌는 속에

21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인류에게 있어서 자주화의 기치를 더 높이 드는것은 진보와 평화를 위해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였다.

2000년 4월 16일.

인민문화궁전 원탁회의실에서 열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15차회의에서 비슈와나스는 국제연구소 리사장으로 선출되였다.

20세기 마지막년대의 10년간 국제연구소사업을 이끌어온 이노우에 슈하찌는 건강상의 리유로 자기의 사임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새 천년기를 맞이한 오늘 우리 국제연구소에는 보다 새롭고 힘있는 체제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국제연구소사업을 추켜세울 새 리사장을 선출할것을 제의합니다. …

나는 새 리사장으로 비슈와나스선생을 추천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에 이바지해왔습니다. 그가 뉴델리를 비롯한 세계의 곳곳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들의 조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으며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글들을 써왔고 또 쓰고있는가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알고있는바입니다.

그는 지금도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오의 앞장에서 맹활약을 하고있습니다.

나는 그가 리사장으로 되면 **김정일**총비서의 의도대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한몫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해주기를 바랍니다.》

회의집행부에서는 이노우에의 이 제의를 충분히 토론하고 비슈와나스를 리사장으로, 이노우에 슈하찌를 명예리사장으로 임명하였다.

비슈와나스의 어깨는 보다 무거워졌다.

그는 자주의 새 세기, 21세기를 넘겨받게 되는셈이였다.

《세계의 벗들!
당신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고 표정은 무표정했다.
참가자들의 박수속에 그는 의장직을 맡은 알바 챠베스를 비롯한 의장단성원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자주의 새 세기를 당겨오려는 비슈와나스의 열도는 세기가 바뀌는 속에 더 높아져갔다.
이제 새 세기에 자기의 인생길이 어디까지 그어지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길은 대를 이어 영원히 이어질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비슈와나스는 첫 사업으로서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는 해에 주체사상 첫 세계대회를 진행할것을 발기하였다.
그날을 향해 그는 뛰고 또 뛰였다. 우선 보다 많은 나라들에서 전국조직들을 결성함으로써 세계대회를 그야말로 전세계의 모든 나라 대표들이 다 참가한 대회로 의의있게 맞이하여야 했다.
비슈와나스는 그해 5월에는 방글라데슈에, 7월에는 스리랑카에, 12월에는 영국에 가서 주체사상전국토론회조직과 연구소조들의 활동을 적극 방조하였다.
그가 움직이는 모든 비용은 무케시가 전적으로 보장하여나섰다. 그것이 단지 자식의 의무에서라면 해마다 제기되는 그 약차한 비용을 그렇게 전적으로 감당해내기 힘들것이다.
무케시는 아들의 의무이기 전에 주체사상신봉자로서, 아시아지역 연구소 부서기장으로서 자기가 응당 맡아나서야 할 시대의 임무로 간주하였던것이며 국제연구소가 자기에게 준 과업으로 받아들이였던것이다.
그 역시 기업가이기 전에 주체사상신봉자였다.
혈연적관계를 초월하여 하나의 리념과 하나의 사상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간의 뉴대처럼 공고하고 영원한것이 어데 있으랴.
이런 사람들, 자주의 새 세기를 열렬히 지향하는 신봉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2000년 한해에만도 네팔, 방글라데슈, 캄보쟈, 몽골, 레바논, 말리, 민주꽁고, 마로끄, 에짚트, 가이아나, 에꽈도르, 유고슬라비아(당시), 따쥐끼스딴, 오스트리아, 로씨야, 로

므니아, 도이췰란드, 오스트랄리아에서 전국적인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수많은 소조들이 결성되는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비슈와나스리사장과 오가미 겡이찌사무국장이 이끄는 새 세기의 국제연구소는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활력에 넘쳐 붐비였다.

국제연구소는 2001년 2월에는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아프리카지역 토론회를, 4월에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 토론회를 조직하였으며 2002년 6월 19일에는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21세기 자주위업에 관한 첫 세계대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당시 세계정치정세는 어떠했는가.

세기가 바뀌는 속에 벌써 인류의 평화념원에 칼질하는 반력사적인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다시말하여 세계적인 충격파를 일으킨 미국에서의 9.11사건에 뒤이어 《반테로전》이 선포되고 미국주도하의 아프가니스탄전쟁이 터졌던것이다. 폭탄과 미싸일등이 비오듯 쏟아지며 터지는 무시무시한 폭음과 불길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깨여버렸다. 새 세기 침략전쟁의 막을 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 이어 이라크전쟁을 감행하는것으로써 인류의 자주, 평화념원에 정면도전하여나섰다. 그들은 유엔도 국제법도 세계민심도 안중에 없었으며 오로지 힘의 만능론만을 인정하였다.

사태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세계는 언제가도 평화로울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이것이 세기가 바뀌면서 인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력사의 경종이였다.

자주의 흐름을 가로막아보려는 힘의 세력이 아무리 사나와도 인류에게는 자신을 정화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것이다. 인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고 이 지구상에는 정의도 지성도 문명도 존재하지 않았을것이다.

력사를 돌이켜보라. 세계를 제패할것처럼 날뛰던 파쑈광들의 운명이 종당에는 어떻게들 되였는가.

인류의 운명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진보적인민의 자주적련대를 호소하는 비슈와나스의 목소리는 절

절하였다.

온 세상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더욱 굳게 뭉쳐 자주의 새 세기를 앞당겨올것을 열렬히 호소하는 그의 목소리는 세계의 곳곳에서 울리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신봉자들과 련대하여 2005년에는 또다시 남아메리카에서 21세기 반제자주위업에 관한 세계대회를 조직하였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까라까스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대회는 아메리카대륙에 자주의 열풍을 몰아오는 또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새 세기의 국제연구소를 이끌면서 비슈와나스는 국제연구소와 지역연구소 리사회를 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보다 심화시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이였다. 그는 지역연구소 리사장들로는 허물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있는 명망높은 학자들로, 서기장들로는 조직력도 있고 사회적영향력도 행사할수 있는 인사들로 꾸림으로써 그 활동의 기초를 보다 튼튼히 쌓아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역시 그는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주인으로서의 임무를 자각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2005년에 아시아지역 연구소 서기장으로 하리쉬 굽따박사를 선출하였다.

하리쉬 굽따는 1980년대초부터 주체사상신봉자가 되여 활약해온 델리종합대학의 이름있는 경제학교수였다. 주체사상에 공감한 그는 인디아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토론회들의 조직에 기여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론증하였다.

그의 주택은 뉘샬리 비탐브라구역에 있었다. 그 구역은 델리종합대학의 가까이에 있는 교수들만이 사는 구역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주위의 많은 교수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있었으며 그들을 주체의 길에 인입하고있었다.

또한 델리종합대학 녀성단과대학 학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그의 처

싸드나 하리쉬도 열렬한 주체사상신봉자였다. 영문학 교수, 박사인 그는 특히 조선의 선군정치에 큰 감동을 받고 자기 대학의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준군사교육을 주고있었다. 그는 인디아선군정치연구조직을 내오고 그 위원장으로 활약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항상 주위의 모든 신봉자들의 활동과 그들의 능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있었다. 그만하면 학자적명예도 있고 나이도 지숙한 하리쉬 굽따가 적임자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무케시 샤르마를 추천하는것을 반대하였다. 젊은 무케시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는것이였다. 이리하여 하리쉬 굽따에게 지역연구소 서기장직이 넘겨지게 되였던것이다.

일은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특히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국제기구와 산하 지역기구들의 조직문제에서 그 어떤 사심이나 편견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2006년 9월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0차회의를 소집하고 국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사업체계를 보다 철저히 확립할것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비슈와나스는 집행위원들과 손을 잡고 국제연구소와 지역연구소들을 강력한 조직으로 부단히 개선강화해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갔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비슈와나스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였다.

우선 그는 이해의 첫 사업으로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수여해드리는 국제**김일성**상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평양에서 돌아오는 길로 그는 2월 27일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자력갱생, 민족경제 및 자주위업에 관한 아시아지역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치르었으며 그해 5월에는 이딸리아의 로마로 갔다.

이미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를 재편성한 비슈와나스는 로마에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회사 제9차회의를 열고 리사회를 새롭게 편성하였다.

리사장으로는 역시 저명한 학자인 에드몽 쥬브가 재선되였으

며 리사들은 일부 소환, 보선하였고 서기장으로는 프랑스어, 에스빠냐어, 영어 등에 능한 이딸리아페르쟈외국인대학 교수인 마떼오까르보넬리를 새롭게 선출함으로써 유럽각국의 조직들과의 련계를 직접 취하며 원만하게 사업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련이어 로마에서 《나라의 자주성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유럽지역토론회를 조직진행하였다. 토론회는 유럽의 실정을 고려하여 창조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로마대학을 회의장으로 함으로써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여 알찬 내용들을 토론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날아가 그곳 지역연구소들도 재편성할 계획이였다. 이미 안은 짜있었고 필요한 조직사업도 되여있었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도 그 다음달에 뇌수술이라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치르고 생사기로의 침상에 눕게 되였다.

아, 인생이여!

10대의 소년시절부터 꿈많은 포부를 안고 한 도시의 골목골목을 살피며 새소식을 취재하던 어제날의 그 리포터의 지칠줄 모르는 걸음이 정녕 여기서 멈추어서는것인가.

그와 련결되여있던 세계의 모든 조직선들과 신봉자들이 인디아의 아폴로병원으로 쏠렸다.

2. 뇌수술

한잠을 푹 자고난듯 비슈와나스는 스르르 눈을 떴다.

맨 처음 뿌잇하게 보여오는것은 흰 위생복을 입은 사람의 형체이다. 그다음 그는 다시 눈을 뜰 때처럼 스르르 감았다. 아직 잠에 취한듯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가.

비슈와나스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그 형체가 점점 선명히 보여온다.

처녀!

흰 위생복을 입은 간호원처녀가 분명하다. 곱게 생겼다. 세상이 한결 밝은듯 하다. 그럴만도 한 일이다. 지옥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처녀의 밝은 인상은 실로 생신한 세상이였다.

다시 세상사람이 되였다고 생각하니 신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것자체가 살았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다시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좋다. 그래야 한다. 이 비슈는 물론 그래야 한다. 내 마음속의 아름다운 두루미는 계속 날아야 한다.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일을 나는 설계하고있는가.

채 하지 못한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지역 연구소리사회의 재편성도 마저 해야 했다. 그리고 책도 더 써야 했고 토론회도 더 해야 했다. 정신이 들자부터 그는 이렇게 또다시 맹렬하게 사고하기 시작하였다.

다행이였다. 일반적으로 뇌수술환자들은 사는 경우에도 기억력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비슈와나스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다 생각났다.

환상소설들에는 기억력을 잃은 사람들이 나온다. 비슈와나스는 그렇게는 살고싶지 않았다. 어제날에 대한 기억력을 상실한다면 그런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볼수 없기때문이다.

그는 수술장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나의 뇌수가 정상상태로 되지 않으면 아예 지옥행렬차에 태워보내달라.》

그는 자기의 인생길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왔는가부다 하고도 생각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였다.

나의 의지를 시험해달라, 나의 육체여!

인간의 육체적능력은 강의한 의지에 의하여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한다고 하였다. 과연 인간에게 있어서 의지의 한계는 얼마만한것인지.

인간은 사는 이상 자기자신에 대한 아름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비슈와나스는 식물인간으로는 살고싶지 않았다. 또한 그런 식물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고싶지도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며칠전부터 머리가 쑤셔나게 아파남을 어쩔수 없었다. 그것은 판도리비비마을에서 야밤삼경에 돌아온 그날부터였다.

그즈음 판도리비비마을에서는 점점 소리가 나고있었다.

가물과 홍수로 인해 흉작이 잦았고 그때마다 샤르마가문의 친척들은 손을 내밀었다. 언제나 자금난이였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2달에 한번씩 지어는 매달 거기에 가서 평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두르가데비가 움직일 때까지는 그가 내려가있으며 알심있게 종자를 뿌리게 했고 또 수확물들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게 했으며 그것을 또 골고루 나누어주며 의견없이 처리하군 하였는데 이제는 어머니마저 안계시니 비슈와나스가 나서야 했다.

그들끼리 놔두면 서로 다투기가 일쑤였다.

날씨도 점점 좋아지지 않았다. 금년에도 비가 오지 않아 사탕수수는 망쳤다. 그들은 또 손을 내밀었다. 투자하는것에 비해 소득이 점점 적어져갔다. 그래서 도시와 해외에서 사는 친척들이 거의 해마다 돈을 얼마씩 내여 도와주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그들이 참으로 살아나가기 어렵게 돼먹어가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의 자식들은 점차 판도리비비마을에는 가지 않고있었다.

그들의 눈길은 보다 넓은 세계에로만 향해졌지 농촌마을은 돌아보려 하지 않았다. 거기에 친척들이 살고 가문의 령지가 있다한들 그런것은 큰 문제로 되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나 가문의 좌상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비슈와나스는 금요일에 떠났다가 일요일에 돌아오군 하였다. 오후 4시에 떠나면 8시반에 도착하였다. 가문의 좌상이 된 비슈와나스앞에서는 누구도 감히 정면에서 엇서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농촌사람들은 제각기 자기나름이였고 단순했다. 그들은 도와줄수록 만족해하지 않았고 더 주지 않는다는 불평만을 늘어놓았다. 젊은 아이들까지 령감이 자기들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푸념뿐이였다.

자기의 힘으로 생활난을 타개할 생각보다도 그 누가 도움을 주기만을 바라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계몽시킨단 말인가. 누구는 도와주어서 일어섰는가.

판도리비비마을의 친족들은 한뉘 태여난 곳에서 세습적으로 물려받은 령지의 노예가 되여 서로 다투고있었다. 그들에게는 판단이 없었고 의견만이 있었다.

우는 사람도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될수록 성격을 누잦히고 그들을 리해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한뉘 봉건이 짙은 농촌마을에서 대대로 물려온 령지를 저마다 뜯어먹으며 살아온 샤르마가문의 족속들을 다 리해시킨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샤르마가문에서 법관이나 경영자가 되여 도시로 나온 사람들이 간혹 있었고 카나다로,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고향땅에 그냥 살고있었다. 그 땅에는 할아버지형제의 후손들이 거의 다 살고있었다.

마노하루가 아직 살아서 그 땅에 있지만 그는 고목에 불과했고 친족들은 그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그들중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비슈와나스는 한족보인 그들이 땅을 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기를 바랐다.

땅을 나누지 않았기때문에 그들은 모두 제각기 그 땅을 내 땅이라고 불렀다. 만약에 땅을 나눠가진다고 하면 오늘에 와서 그 땅은 사실 보잘것 없는것으로 되고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고향집도 개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선친들을 추억하고 서로서로 도와주며 화목하게 살기를 바랐다.

실지로 판도리비비마을에 그의 집만이 옛 모습을 보존하고있었다. 판도리비비마을이 이제는 작은 도시로 변했던것이다. 우물이 수도로 되였고 발전기가 없어도 전기가 먼 곳에서 흘러오고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돼먹은것인지 비슈와나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월이 갈수록 화목했던 선친들의 후손들을 서로서로 자꾸만 갈라놓으려고 하는것이였다.

누구의 생각이 봉건인지 아직은 서둘러 단정하지 말자.

어쨌든 세상을 돌고돌며 자유와 평화의 하늘을 날고나는 아름다운 그 두루미는 자기의 고향마을에 오면 답답해하였다.

옛날에는 그렇게 커보이던 집이 이렇게 작은줄 몰랐다.

이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좁게만 생각하고있어 이 집이 더욱 그렇게 보이는것인지도 몰랐다.

비슈와나스는 세월과 함께 불어난 샤르마가문을 하나의 마음으로 단결시키지 못하고있는 자신이 한스러워보이기도 했다.

사람은 수치스러울 때가 있다.

신경질이 난 그는 한밤중에 운전사를 깨워 뉴델리로 돌아오고말았다.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났다. 가슴도 아팠다. 비슈와나스가 바라는 세계와는 아직도 너무나 거리가 먼 이 나라의 농촌이였다.

복잡다단한 이 땅, 이 세계를 평정하고 하나의 사상, 하나의 리념으로 물들인다는것은 참으로 헐치 않을것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었다.

비슈와나스는 드디여 머리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아마도 그것은 80이 지나도록 쌓이고쌓인 스트레스의 폭발이기도 한듯싶었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다. 아시아에서 이름있다고 하는 아폴로병원의 의사들은 비슈와나스의 머리를 검진하고 곧 수술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뇌실질안에 생긴 고름집을 발견하였던것이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여서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조기적출수술을 하면 일없을수도 있다는것이였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였다고 해도 심장이나 뇌수술은 누구나 심사숙고한다. 그것은 생명과 직접 관련되여있기때문이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제꺽 동의하였다. 그것이 그의 성격이였다. 그는 죽든가 아니면 사는 이상은 깨끗한 머리로 사고하며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수술장으로 들어갈 때 아픔속에서도 그렇게 말했던것이다.

강한자는 죽음을 이긴다. 의학도 죽음을 타승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의 뇌수술은 성공적이였다. 며칠만에 정신을 차린 그

는 아무일도 없었던듯싶었다.

그는 수술장에 들어가던 때처럼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리였다.

아, 나의 인생길에 다시 파란불이 켜졌는가.

그는 80여년동안 쌓인 뇌의 피로를 풀었다고 생각하였다. 두뇌활동은 이제 더 활기있게 진행될것이라고만 믿고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머리도 몸도 움직일수가 없었다.

간호원처녀에게 날자를 물어보았더니 6월 9일(2007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3일간을 내처 잠들어있었던것이다.

그 3일간이 아까왔다.

어랍쇼, 81살의 나이에 뇌수술을 한 환자가 이처럼 시간을 재며 그 시간마저 아까와함은 그의 앞길에 아직 얼마만한 설계가 펼쳐져 있는것인지 참으로 그것은 공감할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지 않는가.

세척된 두뇌는 누운 상태에서도 자기 사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의 가족측에서도 노상 붙어있었지만 간호원처녀가 모든 시중을 들어주었다. 별스레 고와보이는 그 처녀는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어뵈였다. 그러나 낯이 익을수 없는 처녀였다.

병원에서는 완쾌되려면 6개월은 걸려야 한다고 하였다.

면회는 수없이 왔다.

조선대사관 성원들은 거의 매일이다싶이 왔다. 비슈와나스는 왜서인지 그들이 매일같이 기다려졌고 오면 그들과 인생담을 나누었고 래일에 대해 설계했다.

병원에 입원해있으면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그리워지고 하고싶은 말도 많아지는것이 인간의 심리인듯싶다.

국내외의 많은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수시로 면회를 왔다.

하루는 뜻밖에 멀리 인디아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부터 레기에 라나툰게가 병원에 나타났다.

그 역시 서로 오가면서 주체사상으로 가까와진 친구였다. 그는 몇년전 가리브 네와즈가 국제연구소 리사로 소환된 후에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직을 맡고있었다.

스리랑카의 사바라주 지사인 그는 한때 상을 한 전적도 있는 정계의 이름있는 인물이였다.

레기에 라나툰게는 지역연구소 리사장이면서 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이였으며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고문이기도 하였다. 그와는 해마다 평양에서 또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국제토론회장들에서 만나고있었으며 지금은 매일 전화하고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직접 찾아올줄은 몰랐다.

그는 최근에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럴수록 그는 왜서인지 주체의 벗이 진정으로 보고싶어지고 또 지역연구소의 일들도 마주앉아 구체적으로 토론하고싶어져 불원천리하고 찾아온것이였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주었고 앞으로의 일들을 설계했다.

또 하루는 파키스탄의 남부도시 카라치에서 자베드 안싸리가 찾아왔다. 그는 비슈와나스를 보고 푸른 숲의 거목이라고 즐겨표현하군 하였다. 그때마다 비슈와나스는 말없이 웃었다. 그가 말하는 그 푸른 숲은 나날이 지구를 뒤덮어가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무성한 모습이리라.

자베드 안싸리, 20대의 대학생시절에 사귄 그는 지금 50대의 세련된 사회활동가로 자라난것이였다.

이제는 그가 주체사상선전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되였다.

그는 이미 1999년에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회를 새롭게 결성하고 그 서기장으로 선출되여 활약하고있었다.

2006년 4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로 선출된 그는 지금 파키스탄과 지역의 자주화를 위해 대륙을 넘나들고있었다.

지난해에도 그는 조선을 보름간 방문하면서 조선의 학자들과 많은 학술토론을 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각지에 보급하기 위해 모든 심혈을 기울여가고있었다. 주체의 대는 이렇게 이어져가고있었다.

고마왔다. 비슈와나스는 주체의 벗들이 한없이 고마왔다. 벗들의 진정이 몸가까이 느껴질수록 그의 마음은 한시바삐 완쾌되여 푸른 대지로 뛰쳐나가고싶었다.

아, 생활이여! 너는 함께 한길을 가는 벗들의 강렬한 우애심과 미래에 대한 불타는 지향에 떠받들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인가.

국제연구소 리사장에 대한 세계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신봉자들의 관심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다.

국제연구소 사무국과 각 지역연구소, 전국연구위원회들, 조선사회과학자협회에서 매일 건강을 문의하는 통보문이 날아왔다.

또한 국제전화들이 련이어 왔다. 일본의 오가미 겡이찌와 이노우에 슈하찌며 에꽈도르의 알바 챠베스와 영국의 키스 벤네트며 파키스탄의 알따브 후쎄인이며…

모스크바에 있는 전시회사의 총국장을 비롯한 공식인물들, 뻬뜨로브와 안드로첸꼬를 비롯한 이전 동업자들에게서도 자주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는 놀랐다. 비슈와나스가 이렇게도 세계적인 인물인가.

비슈와나스도 놀랐다. 나에게 세계적친구들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눈물이 났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세계에 있는것은 주체사상의 덕분이였다.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길에서 이렇게도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된것이였다.

건강을 문의해오는 수백명의 그들중에는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리스도교 등 각이한 교도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모두는 주체사상을 따르고있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각이한 리념들을 다 포섭한 인류의 보편적인 위대한 사상이였다.

그러던 어느날.

곱게 생긴 그 간호원처녀가 허리가 굽어든 할머니와 함께 들어섰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볼수가 없었다. 그 할머니는 그냥 서서 비슈와나스를 말없이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누구일가?!

생각을 더듬는 비슈와나스의 눈길은 그 할머니에게서 처녀에게로, 다시 처녀에게서 할머니에게로 부단히 오갔다.

그러기를 몇번.

불시에 비슈와나스의 눈에 처녀와 할머니의 모상이 한모상으로 겹치며 안겨드는것이였다.

추억은 멀리 60년전 라호르에로 갔다.

그렇다. 분명 그 처녀다. 한때 애틋한 감정을 품었던 그 처녀가 지금 자기앞에 옛 모습그대로 처녀로, 아니 할머니로 서있는것이였다. 간호원처녀는 그 할머니의 처녀시절의 모습이다. 그래서 간호원처녀가 그리도 낯익어보였던가.

비슈와나스의 입이 저도모르게 열리였다.

《아, 파라카슈!》

그 목소리는 신음소리에 가까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후사연은 어떻든지간에 수십년만에 동창생을 만난 반가움의 목소리였고 젊음을 찾아주는 환희로운 삶의 감탄이였다.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렇게도 만날수 있단 말인가?!

둘은 어린애들마냥 손목을 덥석 잡았다.

꼭 60년만이다. 나라가 분렬되던 1947년에 헤여졌으니 세월이 벌써 그렇게 된것이다. 정말 이들은 60년만에 다시 만나 그날의 청춘시절에 섰는가?!

어딘가 숨어들었던 그 빛이 오늘을 기다려 꺼지지 않고있은듯싶었다. 그들의 회포는 끝이 없었다.

파라카슈는 뉴델리에 살고있었다. 그는 4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였고 여러명의 손자, 손녀들을 거느린 할머니였다. 그 자손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간호원처녀였던것이다. 손녀에게서 머리를 수술한 환자에 대한 말을 들으며 파라카슈는 그 환자가 바로 누구라는것을 직감하였던것이다.

오, 운명이여! 이렇게 60년만에 다시 만나게 되다니?!

오늘 이들의 나이는 여든!

허나 오늘 이들의 마음은 스물!

수염없는 청춘시절이 어제같은데 벌써 인생은 한고패 돌고돌아 이마우에는 깊은 고랑이 패여졌다.

세월이여, 너 흘러가도 마음은 누구에게나 젊은 시절 그대로인가.

파라카슈는 놀랐다. 라호르의 그 시절처럼 오늘도 붓대를 쥐고 세상을 론하며 위대한 사상의 연구보급을 위해 병원에서도 꾸준히 일하고있는 그의 모습에 감탄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그대로

의 비슈와나스를 보았다. 비슈와나스의 정열은 오히려 그 시절보다 더한듯싶었다.

《파라카슈!》

비슈와나스는 젊은 시절 그때처럼 이름을 불렀다. 파라카슈는 반세기도 훨씬 넘은 지난날이 어제런듯 깊은 감회에 잠겼다. 그가 처녀시절에 비슈와나스를 마음에 두었던것은 그에게 결단성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지금도 그는 젊은날의 성격그대로 결단성있게 말하는것이였다.

《이 세상의 진리의 빛은 주체사상이요. 주체사상을 따르면 누구나 젊어지오.》

주체사상의 빛발은 파라카슈의 가문에도, 아폴로병원에도 흘러들었다. 비슈와나스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주체사상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비슈와나스는 병원에서 자기가 사회적존재임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듯싶었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값높은 삶은 바로 그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이며 사는데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비슈와나스는 사회적존재로서 사람답게 살고싶었다.

그에게 있어서 사회정치적생명의 모체인 사회적집단은 주체사상연구조직이였으며 신봉자들의 대오였다. 그 대오의 앞장에 섬으로써 그의 삶이 빛나고있는것이였다.

주체사상은 그의 피였고 살이였고 생명이였다. 그것을 빛내이는 길에 그의 생명이 빛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누워서도 국제연구소사업을 계속 내밀어갔다. 전화로 지시하면 모든 조직들과 신봉자들이 다 뛰여다녔다.

일은 그의 락이였다.

그에게 있어서 일이란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위해 투쟁하는것이였다. 할 일은 많았다.

당면해서는 일부 지역연구소 리사회의 재편성을 마저 끝내는

것과 함께 지역토론회들을 실속있게 조직해야 했다. 이것은 다음해 3월에 뉴델리에서 진행하게 될 국제연구소창립 30돐기념행사를 의의있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였다.

시간은 이제 몇달밖에 남지 않았다. 명망높은 학자들과 나라의 고위인사들로 빨리 현지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의장과 숙소, 영접과 환송, 일정과 예술공연, 관광 등에 대해 락착해야 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보고와 토론문들을 품위있게 준비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각국의 대표자전원이 사증을 받고 인디아에 입국할수 있도록 수속해야 했다. 이 많은 일감을 앞에 놓고 병원침대에 누워있다니…

속상함은 이루 말할수 없었다. 그 속상함을 안고 그는 침상에서 부단히 사람을 만나며 전화하며 일을 내밀어갔다.

일이 락일 때 인생은 즐겁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아픔도 시련도 달게 여기며 일에서 죽어도 손을 뗄수 없었다. 일을 할수록 그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사회적집단속에서 살고있음을 시시각각으로 의식하였다. 그 집단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데서 오는 행복감으로 하여 그의 가슴은 부풀고있었다.

그것이면 되였다. 그것이면 죽어도 원이 없었다.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며 산다면 그 삶은 자기 가치가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우리는 인류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가 자기 할바를 다하고 가야 한다고.

3. 샤르마가문의 대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였다.

비슈와나스도 기계가 아닌 사람인데 불과 몇달전에 뇌수술을 한 그의 몸상태가 어찌 편안할수 있으랴.

하지만 그는 치료와 안정을 하는 속에서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침착하게 내밀어왔다.

8월 26일에 에꽈도르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집행위원회 제15차회의와 《자주와 평화의 기치밑에 21세기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라는 주제의 지역토론회, 10월 13일에 탄자니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회 제7차회의와 《아프리카에서의 자주, 단결, 협력과 자력갱생을 위한 주체사상과 새시대》라는 주제의 지역토론회, 11월에 오가미 겡이찌사무국장을 초청하여 인디아에서 진행한 전국토론회 그리고 새해 2008년에 들어와 뉴델리에서 각국의 대표들의 참가하에 성대히 진행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창립 30돐기념행사 등…

강렬한 리성의 힘이 바로 그에게 병마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를 주었고 예나 다름없이 엄한 눈빛을 그대로 주고있는것인가.

비슈와나스는 지금 뉴델리의 노이다지역에 새로 일떠선 화려한 건물을 돌아보고있다.

그는 감탄했다. 설계도 현대적이였고 모든 설비, 비품이 최고급이였다. 3층으로 지은 멋쟁이 그 건물은 건평이 1만평방메터였다. 하지만 비슈와나스의 감탄을 자아낸것은 그 건물의 화려함만이 아니였다. 바로 그 건물의 가장 화려한 1층홀과 2층홀의 정면에 크게 부각해놓은 홀의 이름때문이였다.

무케시 샤르마는 1층홀을 **김일성**주석을 흠모하는 인류의 마음을 담아 《태양의 홀》이라고 명명하고 2층홀을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을 길이 전하려는 마음을 담아 《향도성의 홀》로 명명하였던것이다. 홀들은 각각 6 000평방메터였다.

무케시는 말하였다.

《해마다 4월 15일이면 이 〈태양의 홀〉에서, 2월 16일에는 〈향도성의 홀〉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할것입니다.》

비슈와나스는 이 셋째아들이 미더웠다. 누가 시킨들 그렇게 할수 있으랴.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것이다.

그때부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모시고 이 홀들에서 큰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전국토론회, 련합토론회, 경축야회, 집회 등…

또한 세계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이 인디아에 오면 여기에 초청하여 다채로운 행사들을 하군하였다.

손색이 없었다. 크고작은 회의장들, 각이한 연회장들과 식당들, 그리고 지하에는 1 000대의 차를 세울수 있는 차고 등…

이 전시쎈터의 옆에는 또한 400개의 방을 가지고있는 현대적인 호텔도 지어놓았다.

인디아의 유명한 연출가가 여기에 와서 자주 영화촬영을 하고있었다. 이런 피사체를 영화예술가들이 그냥 스칠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부어주는 부모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다 같다고는 볼수 없다.

비슈와나스는 날이 갈수록 무케시에게 믿음과 기대가 한껏 실리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대를 믿음직하게 이을 아들은 철저히 셋째라고 생각하였다. 그 대는 기업이 아니라 바로 주체의 대였다.

기업에 대한 믿음은 모두에게 있었다. 보통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간에 재산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지만 비슈와나스에게는 그런 우려성이 없었다. 그것은 모든 자식들이 다 자기 기업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며 살아나가는 길에 확고히 들어서있기때문이였다. 물론 기업의 크기는 달랐고 성공과 실패의 우여곡절도 달랐다. 하지만 찌그러져서 파산되는 기업은 없었으며 모두가 자력으로 앞길을 개척하며 살림을 펴나가고있었다.

물론 기업도 무케시가 제일 컸다.

어느정도인가?

뉴델리의 중심에 있는 공원 가든 오브 화이브 쎈씨즈(5개의 감각)도 무케시가 정부로부터 40년을 기한으로 2007년부터 임대하여 운영하는 정도였다. 그는 10정보의 면적을 가진 이 공원안에 36개의 큰 상점들과 20여개의 식당, 유희시설들을 새롭게 전개하였다.

꽃과 분수로 아름다운 이 공원에서는 정말 여러가지의 감각을 다 맛보게 되여있는것인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며 명절이면 사람들로 꽉 차고넘쳐 흥성이였다.

나라의 전시쎈터와 호텔기업의 거두로 등장한 그는 수도에는 물론 전국의 많은 주들에 기업을 뻗치고있었다.

인디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며 나라의 정보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드바르에도 그는 최근에 5성호텔을 개업하였다. 외국의 많은 고위급정객들과 수반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인디아의 정보산업기지들을 돌아보군 하였다.

뉴델리에서 그곳까지는 1 000키로메터이다.

무케시는 또한 뉴델리에서 350키로메터 떨어져있는 곳인 라쟈스탄주의 소재지인 쟈쁘르에도 호텔과 또하나의 큰 청사를 건설하고 있었다. 그 청사에는 이제 내올 《국제류행설계 및 기술연구소》의 현판이 붙여지게 될것이다. 그 연구소는 류행설계, 기술 등을 배워주는 대학이다.

이렇듯 넓고넓은 인디아땅의 중요도시들에 있는 큰 호텔들과 문화시설들은 그의 기업의 일환으로 되고있었다.

그 모든것을 돌보느라고 무케시는 바빴다.

그는 여러 나라의 정객들과 정부요인들 그리고 나라의 수많은 관리들과 기술자들, 로동자들을 매일같이 상대하고있었다.

그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체사상신봉자로 이끈다면!

비슈와나스는 무케시에게 바로 이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로 그의 발길이 가닿는 그 모든 곳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이 새롭게 태여나고 또 태여나고있었던것이다.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은 아름다왔고 성실하였고 깨끗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세상에 떠올리며 래일에 대한 희망과 무한한 열정을 지닌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독여주는 삶의 젖줄기였다.

무케시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자기 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로동자, 기술자, 업무원들이 주체사상을 신앙하며 그렇게 살기

를 바라마지않았던것이다.

자식들중에서도 무케시는 주체사상의 진가를 가장 정확히 리해했고 자기의것으로 생활에 받아들이고있는 강렬한 인간이였다.

씨족관념으로는 맏장손을 계렬로 족보를 기록할지는 몰라도 사회적으로는 주체사상을 이어가는 자손을 축으로 가문을 형성하고 이어가야 했다.

바로 그러한 셋째아들 무케시 샤르마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 날이 왔다.

언제나 조용하던 이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처음이다.

뉴델리의 남쪽 싸아나크 람즈지역에 자리잡고있는 이 집은 마치 오늘을 기다려 자기의 큰 자태를 드러내놓고있은듯싶다. 집은 무려 2 500평방메터였다.

키높이 자라 가지를 드리운 나무들이 넓은 잎새를 흔들고 또한 갖가지 꽃들이 피여나는 이 집의 정원으로 사람들이 그냥 흘러들었다.

이 집이 바로 무케시 샤르마의 집이였다.

며칠째 계속되여오는 그의 딸 결혼식은 오늘 6일째 되는 날을 맞이하였던것이다. 처녀의 마지막밤이여서인지 이날에는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녀자는 시집을 가면 부모의 슬하를 떠나게 되여있다. 그때부터 녀자는 또하나의 다른 세계에 들어선다고도 할수 있겠는지. 다시말하여 남편과 운명을 함께 하는 녀자의 운명이 그때부터 시작되는것이였다.

그런것이 하늘이 정해준 인륜이란것인가.

그래서 시집가는 딸의 앞길을 부모들이 모든것을 다하여 축복하여주는듯도 했다.

샤르마가문은 떠들썩하였다.

기티카!

무케시의 맏딸인 그는 델리종합대학을 나오고 류행소개잡지 《브라이드 앤스일》(신부와 스찔)의 기자로 한창 이름을 날리고있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큰 두눈과 그우에 붙인듯한 진한 눈섭, 선이 굵직굵직한 얼굴을 보면 그에게는 부드러운 장난기와 자기의 세계가 있다는것을 짐작하게 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사랑스런 이 손녀의 앞길을 축복하였다. 이미 맏아들의 딸들은 결혼식을 하고 남편들을 따라 카나다를 비롯한 해외에로 날아갔지만 기티카는 뉴델리를 떠나지 않고 문필활동으로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리상을 안고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배우자도 뉴델리에 있는 사람을 택했던것이다.

주체사상신봉자집안에서 태여난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었으며 자기가 쓰는 글들에서 녀성의 사회적지위와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있었다.

오늘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에서나 부부쌍방이 결혼전의 자기 성을 그대로 가지며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있는것은 아니였다.

기티카의 결혼식은 시작부터 흥겨웠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가문의 조상이 기티카의 결혼식에는 첫날부터 참석하고있었던것이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미 증손자까지 거느린 비슈와나스는 가문의 조상으로 받들리우고있었다. 참으로 그는 가문에서 싼타클로스(크리스마스전야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준다는 신적인 로인)와도 같은 존재였다.

비슈와나스는 원래부터 한주일의 결혼풍습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결혼식을 단 하루에 와닥닥 한것을 천만다행으로 두고두고 추억하였다. 물론 그때는 시국이 어수선하여 어쩔수 없는 일이였지만.

정부에서도 이 결혼풍습을 장려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모로 보나 오늘의 현실과 실리에 맞지 않기때문이였다. 하지만 막지는 못하고있었다. 매우 오랜 옛적부터 굳어지고 굳어져온 민족의 풍습은 현대의 생활양식이 아무리 새로운것이라 해도 거기에 자기의 자리를 호락호락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것이다. 강산은 쉽게 변해도 풍습은 달리하기 힘든 법이다.

그래서인지 오늘까지도 인디아에서는 어느 가정에서나 이 결혼풍습이 그대로 적용되여오는것이며 또한 누구도 어쩔수없이

그에 따르고있는것이였다.

참으로 력사와 더불어 형성된 풍습은 그 민족의 고유한 속성인듯싶다.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 영국과 카나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살고있는 인디아의 이주민들속에서도 이 결혼풍습만은 오늘까지 계속 유지될수 있으랴.

오늘 세계적으로 결혼식을 7일간 하는 나라는 인디아와 인디아에서 분리된 파키스탄뿐이라고 한다. 파키스탄에서 또 분리된 방글라데슈는 가난하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

비슈와나스는 결혼식을 유럽에서처럼 2~3시간 교회당에 가서 간단히 하면 좋을것이라고 늘 생각하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가문의 결혼식에 참가는 하였지만 다 비치지는 않았고 중요한 대목들에만 나타나 축하를 해주군 하였다. 그러던것이 기티카의 결혼식에만은 첫날부터 참석하고있는것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기티카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저 멀리 바다건너 국경과 국경을 넘어 일본에서 찾아온 귀한 손님이 첫날부터 참석하고있었으니…

샤르마가문이 떨쳐나서 환대하는 그 손님은 누구인가?!

오가미 미에꼬!

그는 다름아닌 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의 부인이였다.

아, 뜨거워라.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리사장의 손녀의 결혼식에 온 부인의 그 마음!

가족이더냐? 가문이더냐?

아니여라, 그는 가족도 가문도 아닌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차림도 풍습도 서로 다른 이국인!

이웃이더냐? 이웃나라더냐?

아니여라. 그가 온 곳은 이웃도 이웃나라도 아닌 국경과 국경을 넘어 또 바다를 건너 멀고먼 아시아동쪽의 맨 한끝!

하지만 아니여라, 아름다운 녀인이여!

그대는 누구보다도 허물없는 한가족!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이웃!

어찌 그렇지 않으랴. 하나의 리념, 하나의 뜻으로 이어진 숨결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모두의 심장에 높뛰고있는데야.

이처럼 가까운 가족이 어데 있으랴, 이처럼 가까운 이웃이 또 어데 있으랴.

그래서 샤르마가문과 인디아의 신봉자들이 모두 떨쳐나서 그를 뜨겁게 맞이하고 환대하는것이였다.

사무국장이 고마왔고 오가미 미에꼬가 더더욱 고마왔다.

기티카의 결혼식에 참가한 오가미 미에꼬의 모습은 국제연구소가 국제기구일뿐아니라 주체로 맺어진 뜨거운 혈육의 정이 오가는 화목한 한가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감동의 화폭이였다.

그래서 더더욱 환희롭고 의의있게 흘러가고있는 결혼식이였다.

꽃기둥들이 장식되고 꽃줄들이 늘어진 정원의 곳곳을 오가며 또한 활 열려져있는 집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람들이 서로서로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이야기와 웃음, 경쾌히 울리는 노래를 싣고 밤은 흘러가고있었다.

꽃무늬가 그려진 신부의 량손목에 친척들이 금은걸이들을 무거울 정도로 끼워주었고 거기에 저마다 금붙이들이 달린 줄무늬장식들을 또한 무거울 정도로 걸어주었다.

이들은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손목걸이 등의 장식을 좋아한다. 농촌에 가면 지어 발목걸이까지 하는 녀성들이 적지 않다. 이 나라에서는 남자들도 반지를 많이 끼는것이 상례로 되여있다.

인디아에서 이러한 장식은 재산보유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으로 되여있다.

일반적으로 인디아라고 하면 금에 대한 욕망이 류달리 강한 나라로 알려져있다. 금생산량이 극히 적은 인디아가 그 수입에 있어서는 단연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따라서 이 나라에서는 금시세가 끊임없이 저하되고있을 때에도 그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결혼식과 불교의식 등에 써먹을 례물로 금을 저축해두는것은 힌두족가정들에서 전통화된 하나의 풍습이다. 물질적부의 생산에 리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금의 수량은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이다.

인디아에서는 금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의 담보물로 인정되여

오는데 그러한 전통은 B. C. 250년 아쇼까왕의 통치시대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고 한다.

인디아의 오랜 그 전통은 결혼식을 하는 매 가정들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있었다.

부모들과 친척들은 지참품을 금, 은, 보석 등과 함께 돈으로 주고있었다. 지참품을 그런것으로 주는것을 정부가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막고있었으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있었다. 잘사는 집에서는 그런 희유금속과 함께 고급주택도 지참품으로 마련해주고있었다.

인디아에서 라유리(례장)는 지위에 따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늘땅차이였다. 그만큼 빈부의 격차는 심했다.

이 집에서도 그러한 전통은 마찬가지였다.

신부의 볼을 맞춰주는 사람마다 안겨주는 지참품은 한켠에 쌓이는데 그앞에 앉아있는 한사람은 그냥 념불을 외우며 신부의 머리우에 그리고 둘러선 가족들모두에게 《성수》를 뿌려주고있다. 이 모든것이 어길수 없는 하나의 례식으로 되여있는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줄수록 신부는 울며 웃는다. 행복하여서인지 아니면 처녀의 마지막밤이 서운해서인지. 보다는 행복에 겨운 눈물과 웃음이리라.

신랑은 그저 신부의 매혹적인 두눈을 들여다보며 웃고있다. 그에게는 신부가 곱고 이밤이 즐거웁고 또한 래일이 환희로왔으리라.

우디트!

비슈와나스의 이 손녀사위는 인디아에서 잘 알려져있는 손전화회사인 샴통신회사 주인의 아들이였다. 그는 아버지를 도와 이 회사에서 로씨야의 기업들과 합영을 하고있었다.

샤르마가문과 접촉하면서 그도 주체사상을 리해했고 따르고있었다. 기티카의 할아버지 비슈와나스가 말하듯이 주체사상을 배워서 손해될것은 하나도 없었다. 인생에서 얻을것이 참으로 많은 사상이였다. 이 결혼식에 참가한 많은 관리들도 주체사상을 신봉하는것을 보면 이 사상은 확실히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회의 진보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모든 계급과 계층속에 깊숙이 스며들고있는 시대의 보편적인 사상이였다.

웃음속에 노래속에 밤은 흘러가고있었다.

높지는 않으나 은은하게 울리는 오가미 미에꼬의 노래소리가 이 밤을, 샤르마가문의 이 대사를 한결 아름답게 장식하여주는듯싶다.

봄이 왔네 봄이 왔네
어디에 왔나
산에 왔네 언덕에 왔네
들에도 왔네

꽃이 폈네 꽃이 폈네
어디에 폈나
산에 폈네 언덕에 피였네
들에도 피였네
…

사람들이 환성을 올리며 박수를 친다. 정말로 봄이 온것이다. 신랑신부의 마음속에, 모두의 가슴속에…

꽃이 피는 그 봄에 이어 계절은 계속 흐르고있었다.

여름이 왔네 여름이 왔네
어디에 왔나
산에 왔네 언덕에 왔네
들에도 왔네

비가 오네 비가 오네
어디에 오나
산에 오네 언덕에 오네
들에도 오네
…

처녀들이, 녀성들이 즐겁게 서로서로 손잡고 흐르는 선률을 따라

어깨를 들썩이고있다. 모두의 가슴에 아름다운 사계절이 흘러가고있었다. 온갖 꽃이 피고 약비가 내리고 단풍이 물들고 흰눈이 쌓이고…

이 순간 오가미 미에꼬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그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15년전 **김일성**동지를 만나뵙던 그 날에 가있었다.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그이앞에서 삼가 노래를 불러드리던 그 날은 1993년 4월 2일이였다.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가미 미에꼬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잘 하였다고 치하하여주시였다.

그때로 말하면 조선에서 긴장한 정세로 하여 온 나라가 전쟁에 대처할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던 때였다. 바로 그러한 때 오가미의 가족이 조선에 간것은 영웅적조선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려는 마음에서였고 또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는 자기들의 결의를 다지고싶었기때문이였다.

영광의 그자리에서 오가미 겡이찌는 가족을 대표하여 삼가 말씀올리였다.

《주석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위대한 스승이 지켜보고계신다는 자각을 안고 주체의 길을 줄달음쳐온 오가미의 가정이였다. 조선의 적대국 자본주의일본에서 살며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주체의 한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는 그들이였다.

남편을 도와 남편과 함께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고 신봉자대렬을 부단히 늘여가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오가미 미에꼬!

그의 모습은 자주의 길에 피여난 한떨기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끼였다. 비슈와나스와 무케시, 샤르마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고마와했다. 여기까지 찾아와 이자리를 즐겁게 해주고 말없이 자기들을 고무해주는 그가 한없이 고마왔다.

웃음속에 노래속에 날은 밝아왔다.

이날은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떠나가는, 신랑이 신부를 완전히 데려가는 결혼식의 마지막 7일날이였다.

비슈와나스는 떠나는 손녀를 포옹해주며 그의 앞길을 축복해주었다. 손녀를 데려가는 우디트는 할아버지의 발에 손을 대였다.

인디아의 인사법은 발에 손을 다치는것인데 직계가족끼리는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만 하게 되여있는것이다. 례하면 사위와 며느리.

발에 손다치는것은 최대의 인사법이지만 반면에 직계자식이 가문의 어른들의 발에 손을 다치는것은 최대의 죄악으로 되여있었다.

인사하는 손녀사위에게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좋은 사람이 되여달라구.》

할아버지의 그 말을 새겨안고 우디트는 기티카를 데리고 떠나갔다.

비슈와나스가 되여달라는 그 좋은 사람이란 새색시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아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귀중히 여기며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였다.

신랑신부와 함께 량측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신랑의 집으로 떠나갔다. 결혼법도가 그렇게 되여있는것이였다.

오가미 미에꼬도 샤르마가문이 되여 신랑의 집으로 갔다. 마지막까지 그는 한가정이 되여 다 참가하고있는것이였다.

그러한 마음들에 떠받들려 가정을 뭇는 신랑신부는 행복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마음속으로 바랐다.

아, 젊은 쌍이여! 부디 잊지 말아다오, 너희들의 앞길을 세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축복해주었음을!

문득 비슈와나스의 머리속에는 나라가 분렬되고 독립되는 해에 뉴델리에 혼자 발을 들여놓고 외롭게 이 거리를 거닐던 20대 초엽의 나날들이 떠올랐다.

온 도시가 대낮같이 불을 켜고 웃고 떠들며 명절의 밤을 즐기던 디왈리축전날에도 그는 갈데라고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집도 없었던 그에게 찾아올 사람은 더더구나 없었다.

그때로부터 비슈와나스는 이제 자기에게도 집이 생기고 가족들과 동료들이 모여 전통적인 민족의 모든 축전을 한껏 즐길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꾸준히 인생길을 걸어갔다.

돌이켜보면 뛰며 달리며 땀을 많이도 흘려온 세월이였다.

60여년이라는 년륜을 아로새겨온 그 나날에 세상은 얼마나 변하였는가.

추억도 많은 그 년대들을 후대들이야 어찌 다 알수 있으랴만 비슈와나스가 그들에게서 바라는것은 오직 하나였다. 그것은 태여나고 태여나는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참된 삶을 개척할수 있다는 주체의 인생관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운전해가기를 바라는 그것이였다.

샤르마가문은 그렇게 이어져야 했다.

주체의 인생관을 지닌 사람의 앞길에는 광명이 비쳐들기마련이다.

비슈와나스는 그러한 정신세계를 지닌 후손만이 진정으로 샤르마가문의 대를 이을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든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그 정신을 물려주려고 노력하였다.

결혼식행렬은 떠나갔다.

하지만 비슈와나스는 마지막 이날만은 따라갈수 없었다. 이날에 전국토론회를 조직해놓았기때문이였다. 바로 이날에 일본에서도 행사가 있기때문에 오가미 겡이찌가 함께 오지 못하고 부인만이 왔던것이다.

그날은 조선로동당창건 63돐을 맞는 2008년 10월 10일이였다.

4. 세상이 떠들 때면

그 무슨 파문이 일 소식이 있을 때면 기자들은 흔히 한곳에 모여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하면서 론쟁들을 한다. 그리고는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견해 혹은 자기 나라의 립장을 세상에 날린다. 그러한 모임장소의 하나가 바로 첼스포드구락부였다.

비슈와나스는 자주 이곳에 왔다. 여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다 들을수 있으며 또한 여기서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나오기때문이였다.

특히 조선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면 세계의 많은 소식비둘

기들이 쳄스포드구락부에 모여 비슈와나스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조선에 대해 세상이 떠들 때면 의례히 여기에 나타나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그의 성미를 이제는 모두가 알고있었던것이다.
아니나다를가?!
비슈와나스가 문가에 나타났다. 여기저기에 몰켜서서 수군거리던 기자들이 즉시에 그를 에워싸며 말하였다.
《역시 범이구만!》
그들은 모두가 이제 틀림없이 로련한 범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난다고 말들을 하던 참이였던것이다. 이럴 때 보면 범이 제소리하면 나타난다고 하는 속담이 그럴듯하다.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전부터 알고있는 아제이 렐레가 오늘따라 류달리 반가와하며 비슈와나스의 팔소매를 끌어당기며 묻는 말이다. 50대 중반기의 나이인 그는 국방 및 군사연구소에서 국가안보에 대해 연구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인디아의 유명한 군사평론가로 알려져있었다. 친구라기보다는 그저 기자구락부에서 알고지내는 사람이였다.
《어떻게 생각하긴. 마음대로 생각하게나.》
짐짓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며 능청스레 웃는 이 늙은 범의 그 속내를 누가 모르랴.
《그러지 마시고 자, 자.》
그는 계속 비슈와나스를 자기의 가까이로 이끌며 또 먼저 말꼬리를 이어간다.
《그래 선생의 생각엔 미싸일시험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위성시험이라고 생각됩니까?》
조바심이 어린 눈길들이 비슈와나스를 쳐다보며 대답을 재촉한다.
그러거나말거나 카운다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가며 흔연히 내뱉는 비슈와나스의 말.
《미싸일이면 어떻고 위성이면 어떻다는건가? 우선 오늘 나는 기분이 좋아서 한잔 마셔야겠네.》

정말 그는 카운다로 가 한가운데의 걸상에 척 앉더니 위스끼 몇병을 요구하여 내리운다. 그리고는 동료들더러 어서 앉으라고 량쪽의 걸상들을 가리키며 손시늉을 한다.

오늘은 이게 웬일인가?

동료들은 그가 80고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심장의 심한 부담으로 하여 술을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솔선 이런 좌석을 마련하다니?!

정말로 그는 기분이 좋았다.

조선이 미싸일을 발사했다 해도 좋단 말인가?

한잔, 두잔…

사내들이 거의다가 좋아하는 이런 좌석에서는 심중의 말들이 오가기마련이다.

《틀림없이 북조선은 미싸일을 발사했네.》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일러.》

이 좌석의 화제거리는 갈데없이 어제의 일로 세상이 법석 떠들고있는 그 문제였다.

어제(2009. 4.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궤도진입용위성을 탑제한 다계단로케트를 발사하였던것이다.

발사장면이 잠간잠간 텔레비죤화면에 보도되고있었다.

이것은 조선이 1998년에 이어 두번째로 쏴올린 인공지구위성이였다.

조선은 즉시 국가우주개발전망에 따라 운반로케트 《은하-2》호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공식보도를 하였다.

이 발사가 진행되자마자 세계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들로 법석 떠들고있었다. 북조선의 발사는 미싸일이라느니 아니라느니 실패했다느니 성공했다느니…

그 도수는 어느정도인가.

쏘련이 《쓰뿌뜨니크》를 발사하여 세계가 《새로운 우주시대》를 떠들던 때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위성시험이라고하며 탄도미싸일시험을 진행하여 세계를 다시금 핵의 시대로 끌어

왔다고 하는 정도였다. 또한 북조선이 래일은 알라스카를 때릴 수 있다는것이였다.

서방에서는《겁많은 개가 많이 짖는다.》는 말이 통한다고 한다. 적대세력들이 그처럼 헐뜯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들이 아주 잘되고 성과가 크다는것을 반증해주는것으로 될뿐이였다.

반면에 그를 반박하는 론조들.

100여개 나라의 출판보도물이 《조선로케트가 하늘로 날아올라 일거에 천만파장》, 《조선의 발사성공은 이중승리》 등의 제목으로 《광명성2》호의 발사소식을 성공적인것으로 전하면서 조선의 위성발사성공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빛나는 정치적승리, 외교적승리로 평하고있었다.

조선의 위성발사소식으로 세계보도계에 일대 파문이 일어난 때이니 각국의 주재기자들이 조선에 그냥 드나들고있는 비슈와나스의 견해를 들어볼만도 한 일이였다.

기자들은 토핑뉴스와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써내여 명성을 떨치고싶어하는 한결같은 심정을 안고있다. 그런 심정에 싸여있는 각국의 기자들에게 비슈와나스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범상하게 말을 하였다.

《〈쓰뿌뜨니크〉가 발사되였을 때에도 얼마나 헐뜯는 입들이 많았나. 당신들 마음대로 쓰게나. 그러나 명백히 알아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나라이지 파괴하는 나라는 아니라는것을 말이야.》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쓰고싶었다. 조선이 발사한 《광명성2》호에 대하여, 천만번 정당한 공화국의 그 자주권행사에 대하여 자기가 당장 한페지 온 세상에 날리고싶었다.

그의 가슴은 부풀고있었다.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인류의 기술적진보에 커다란 기여를 한 사변으로 되는것이였다. 참으로 《광명성2》호는 100프로국산화된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였다.

선군은 정의이고 진리이며 승리이다. 강력한 군사력이 없으면 이전 유고슬라비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다는것을 과연 누가 부정할수 있으랴.

힘이 약하면 누구든 강대국의 전횡에 맞서지 못하고 망국의 치욕을 당하기마련이다.

조선의 선군정치에 행성을 거머쥐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여지없이 패하고 자주와 정의가 소리치며 이 땅우에 승리를 안아오고있는것이였다.

이 모든것을 그는 쓰고싶었다. 하지만 조선을 찬양하는 글을 너무도 많이 써온 자기를 두고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면에 자기를 조선편이라고 헐뜯는자들도 많았던것이다.

생활은 아름답게만 흘러가는것이 아니였다.

자주적으로 나가는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악감을 속에 품고 외곡과 중상만을 퍼뜨리는 괴한들이 있기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에는 편견과 의혹이 가득차있는것이였다.

하여 그는 쓰지 않고 일부러 여기에 나왔던것이다. 이번에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평을 객관적으로 쓰게 하자는것이였다.

명예는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주저없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이 발사한것은 인공지구위성이라는것, 실패하지 않고 단번에 성공했다는것, 유엔이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에는 틀림없이 효력을 보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즐겁게 마시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런것을 쓰면 그렇지 않아도 조선편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조선에서 시켜서 썼다고 할것 같아서 쓰지 않는다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터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는 글을 부탁할 친구는 많다. 하지만 나는 부탁하지도 않는다. 또 그리고 당신들이 이것을 써도 좋고 안써도 좋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곧 나의 이 말을 실증해줄것이기때문이다.》라고 확신성있게 말하였다.

배심있고 여유작작한 그의 모든 말과 행동거지는 세월의 년륜이 80번도나마 칭칭 감긴 틀진 그의 자태에 잘 어울리였다.

비슈와나스는 각이한 경향을 가진 기자들과 함께 마시며 조선의

배짱과 위력에 대해 계속 말하였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보다 우익적인 경향을 가진 기자들이 조선에 대해 정확히 쓰기를 바랐다. 물론 그런 작자들의 글에는 보수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냄새가 확확 풍기지만 그래도 그 글들에 조금이라도 객관성이 부여된다면 그것대로 효력이 있을것이였다. 그래서 비슈와나스는 은근히 그들을 부추기는데로 말끄리를 이어갔다.

정말 그들이 쓴 글들이 당장 다음날 신문들에 나갔다. 그 글들에는 역시 찌글써하게 보는 눈길들과 우유부단성이 확확 내배여있기는 하였지만 우익적인 사람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은 그 의미를 깊이 가늠해보게 되는것이였다.

린색하기 그지없는 그 글들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신문 《인디안엑스프레스》 2009년 4월 7일부에 실린 글이다.

평양을 지켜보며

…4월 5일 북조선은 미국, 일본, 남조선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궤도진입용위성을 탑제한 3계단로케트를 발사하였다.

이 발사가 진행된 후 서로 대립되는 주장들이 나왔다. 만약 북조선의 주장이 옳다면 지금 이 위성은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선률을 울리며 측정자료전송과 중계통신을 진행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이 발사후 그 어느것도 궤도에 진입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발사된 로케트의 2단계와 3단계가 계획대로 분리되지 않아 그 무엇도 궤도에 진입되지 않았다고 하고있다.

서로 상반대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는 현시점에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이르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하다. 그것은 만약 이 발사가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실패라는것이다.

왜냐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적인 압력을 이겨내며 자기의 의사대로 발사를 실현하였기때문이다.

일본은 그 로케트가 자기 나라의 상공을 날아넘을 때 요격하

겠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자위대무력은 요격미싸일을 탑재한 이지스미싸일구축함무력을 일본해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요격미싸일기술은 커다란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자기의 발사기지로부터 미싸일을 선제타격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

미싸일이 상하승할 때 그것을 정확히 요격한다는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아직 탄도미싸일요격체계는 커다란 기술적제한성을 가지고있다. 때문에 미국도 처음에는 미싸일을 요격하겠다고 떠들었지만 후에는 슬그머니 물러앉은것 같다. …

북조선의… 이번의 발사는 첫 계단이 적어도 성공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할수 있다. …

보도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래일은 알라스카를 때릴것처럼 반응하고있다.

위성과 대륙간탄도미싸일간에는 섬세한 차이가 있다. 대륙간탄도미싸일은 아주 발전된 재진입기술을 필요로 하고있다. 때문에 위성을 궤도에 제대로 진입시킬수 있는 나라라고 하여 이러한 기술을 소유하고있다고는 믿기 어렵다.

인디아는 조선문제에 관한 자기의 립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나라가 다 아시아국가이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서 핵무기를 가진 국가이므로 자기의 립장을 가지는것이 외교적으로 필요하다. 인디아는 이 지역에서 아주 성공적인 우주강국중의 하나이므로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필요성을 위장하면서 우주기술을 가지는것을 자기의 리익에 저촉되는것으로 보고있다. …

현단계에서 이 문제가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되고있으므로 조급한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것 같다. 북조선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큰 효력을 볼것 같지 못하다. 어째든 로씨야와 중국은 북조선에 대한 그 어떤 안보리사회의 결정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표명하였다.

인디아는 그것이 핵기술이든 미싸일기술이든 탄도미싸일기술이든 혹은 우주기술이든 서로 련관되여있다는것을 알고있다. …

그 누구도 인디아로 하여금 명백한 립장을 가질것을 강요하지 않는 이상 두고보는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제일일것 같다.

이 글은 아제이 렐레가 쓴 글이였다. 《인디안엑스프레스》는 전세계에 배포되는 큰 신문이였다. 그 신문은 인디아에 11개의 지부를 두고있으며 부수는 400만이였다.

다음날 그 글들을 읽은 비슈와나스는 췜스포드구락부로 또 나갔다. 그리고 그 글들에 슴배여있는 국수주의적요소와 우유부단성은 말하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립장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의의에 대하여 피력하였다.

정말 시간을 다투며 비슈와나스의 모든 말은 실증되고있었다.

조선에 대한 오도된 보도들은 정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우유부단한 립장에 서있던 사람들의 글에서도 점차 명백한 선들이 그어지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여러 나라 군사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여 조선의 로케트발사에서 1, 2단계는 특별히 주목할만 하다, 이번의 발사성공으로 조선은 로케트의 발사준비와 지상통제, 유도 등 기술적문제들을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였음을 과시하였다고 보도하고있었다.

또한 미국의 CNN방송은 인터네트에 조선이 발사한 로케트가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사진을 공개하였으며 미국잡지 《타임》은 설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후속대응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에는 타격으로 되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시간이 갈수록 조선의 위성발사성공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외교적승리라고 평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높아졌다.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혀주는 가장 옳은 심판자는 역시 시간이였다. 시간에는 그 누구도 맞서서 견딜수 없다.

말없이 모든것을 보여주는 시간은 스승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슈와나스의 가슴에도 그만큼 긍지가 커지는것이였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온 지난 반세기가 긍지로왔다. 그것은 주체사상의 창시국이 누가 뭐라든지간에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한길, 사회주의의 한길을 꿋꿋이 가며 모든것에서 이기고있기때문이였다.

실례로 1990년대에 세계의 초점을 집중시켰던 미제와의 핵대결에서 승리를 거둔것이 그러했고 2000년대에 핵보유국으로서의 당

당한 지위를 차지한것이 또한 그러했다.

그 누구든 자기가 신봉하는 사상의 불패성을 보는것처럼 긍지롭고 자랑스러운 일이 또 어데 있으랴.

그 긍지, 그 자랑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여유작작하게 국내외의 기자들을 대하고있는것이였다.

이렇듯 로련한 범은 조선에 대해 세상이 떠들 때면 첾스포드구락부에 줄곧 나와 거기에 맞서나갔다. 각국 외신들의 주재가 다 모이는 그 장소의 악센트에 의해 세상의 소리가 커졌다작아졌다 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것을 보아온 그는 언제나 덤비지 않고 시간과 함께 사람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깨우쳐주며 꾸준히 정의의 한길을 걸어갔다.

5. 한길우에서

아쉬쉬가 류학을 마치고 돌아왔다.

20대의 름름한 청년으로 성숙된 이 손자를 바라보며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비슈와나스였다.

아쉬쉬는 영국에서 12년간을 공부하였다. 비슈와나스가 그를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 런던에서 교육받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시절부터 해외에서 공부한 그는 킹즈 콜리쥐(왕의 대학)까지 졸업하고 조국으로 돌아왔던것이다.

영국영주권을 가지고있는 비슈와나스는 그사이 런던에 자주 가 이 손자를 만났다. 또한 아쉬쉬는 방학때면 집에 와 어린시절과 다름없이 할아버지의 곁에 붙어있었다. 가장 사랑하는 이 손자와는 항상 만나고 련계가 있었지만 류학을 완전히 마치고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와 함께 있게 되였으니 비슈와나스의 기분은 마냥 좋아지는것이였다.

아쉬쉬는 대학에서 영어를 배우고 시장 및 기업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최고의 고등교육을 마쳤는데도 그는 계속 공부할 심산이였다. 그는 한달에 며칠간씩 런던에 가 박사원과정까지 마치겠

다는것이였다. 또한 그는 아버지의 기업을 돕는 한편 할아버지와 함께 주체사상연구보급을 위한 길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아쉬쉬의 리상은 높았다. 그는 자기의 모든 활동에 주체사상을 구현해가는것을 더없는 긍지로 간주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보람이 있었다.

어린 아쉬쉬를 런던의 고등학교에 넣을 때 비슈와나스는 이 손자를 키스 벤네트에게 맡겼던것이다. 다시말하여 영국에서의 아쉬쉬의 공식적인 후견인은 키스 벤네트였다.

런던에는 상주하고있는 아쉬쉬의 삼촌(비슈와나스의 넷째아들)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후견인으로 내세운 그 사람은 누구인가.

키스 벤네트, 그는 주체의 벗이였다.

비슈와나스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것은 1984년 4월 뽀르뚜갈의 수도 리스봉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장에서였다.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젊은 그의 모습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으며 그때부터 비슈와나스는 영국에 갈 때마다 그를 만나기 시작하였다. 키스 벤네트는 런던교외의 좋은 위치에 있는 독채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었다. 그 역시 인디아에 올 때마다 비슈와나스를 찾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주체로 맺어지고 주체로 가까와진 벗이였다. 같은 리념, 같은 뜻은 사람들을 직업과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벗으로, 형제로 맺어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공고한 뉴대였다.

키스 벤네트는 영국에서 출판하는 인디아신문회사에 관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많은 인디아사람들과 교제하고있었다. 또한 그는 인디아계영국인이 영국정부의 상을 할 때 그 상의 서기를 한 전적도 있었다. 이런저런 연고로 하여 그들은 친숙하게 지내고있었으며 주체의 길에서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고있었던것이다. 세계의 곳곳에서 진행되는 주체사상국제토론회들에 그들은 항시 함께 참가하고있었다.

당시 키스 벤네트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였으며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 조선인민과의 영국친선련대성운동 위원장, 영국국회 제정당 친선의원그루빠 서기였다.

오늘 그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국제**김일성**기금》사

무국장으로서 비슈와나스와 손을 맞잡고 주체사상연구보급선전의 앞장에서 활약하고있다.

바로 그러한 키스 벤네트가 동료의 어린 손자의 공식적인 후견인이 되여 10여년간 그를 어떤 길로 이끌었겠는가 하는것은 명백한것이였다.

조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주체사상신봉자들속에서 주체의 원리를 익혀오며 성장한 아쉬쉬였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무엇을 생각하고있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모른다. 오직 본인만이 그 모든것을 안고 자기 갈길을 묵묵히 가고있는것이다.

아쉬쉬는 주체사상에 대한 글도 제절로 여러건 써가지고왔다. 《주체사상과 인디아》, 《나의 앞길에 비치는 해빛》 등의 제목으로 쓴 그의 글들은 일반적인 해설글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민중의 요구에 맞게 실천적으로 연구분석한 론문형식이라는데 자기의 개성이 있었다. 그것을 본 파타크박사는 수준이 있다고 하며 그 글들을 곧 《주체의 시대》에 편집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아쉬쉬는 발표를 서두르지 않았다. 좀더 다듬고 세련시킨 다음에 론의에 붙여보겠다는것이였다.

더없이 사랑스런 손자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어린시절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판도리비비마을을 돌아보며 호기심을 가졌던 아쉬쉬는 점차 세계관이 형성되면서 세습적으로 물려오는 가문의 령지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고있는것이였다.

샤르마가문의 후손중에서 이 아쉬쉬만이 의외에도 가문의 령지가 조상의 유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고있었다.

이것은 모순적인 일이 아닌가.

킹즈 콜리쥐를 나온 그가, 장차 보다 넓은 세계의 활무대에로 진출해야 할 세대가 세습을 따르다니?!

어쨌든 그는 명백하게 말하였다.

《내가 판도리비비마을을 다시 일궈세우겠습니다.》

《?…》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가문의 령지가 탐나서인가?

의혹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아쉬쉬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아무리 령락해도 판도리비비마을은 내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비슈와나스는 감격했다.

세습적인 령지라는 개념전에 제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 정신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다행이였다. 손주대에 가서 선친의 고향마을을 지키겠다는 후대가 나온것은 천만다행이였다.

결코 너 헛배우지 않았구나!

그렇다. 판도리비비마을에는 선조의 념원만이 아닌 인디아의 전통이 있고 넋이 깃들어있다. 아무리 낡아도 판도리비비는 우리의것이다.

우리모두는 인디아사람들이다.

아쉬쉬는 이렇듯 선친의 고향마을에 대해서도 자기의 일가견을 뚜렷이 가지고있었다.

어쨌든 그는 모든것을 할아버지를 따랐다.

샤르마가문의 고집스런 유전의 피가 이 손자에게 력력히 흐르고있다고 생각하니 비슈와나스는 다소 마음이 평온해지는것이였다.

누구든 조상의 땅을 잊어서는 안되는것이다.

사람은 제 민족, 제것을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허무하게 여기게 되며 그런 사람은 결국 자주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것이다.

주체가 이것을 가르치고있지 않는가.

선친의 고향마을에 대한 사랑, 다시말하여 조국대지에 대한 사랑은 새 세대들로 하여금 지난날의것을 이어받아 앞길을 개척해나가며 자기가 살고있는 사회를 개변시켜나가려는 의욕을 북돋아주는것이였다.

아쉬쉬는 말하였다.

《주체사상은 실천을 위한 철학이며 생활과 행동의 지침입니다. 주체사상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담당자는 그 나라의 민중이라는

것을 밝혀주고있습니다.》

그는 지금 어린시절처럼 매일 《주체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고있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부단히 문답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아쉬쉬가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보다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더 깊이있게 파고들고있다고 생각되였다. 응당 그렇게 되여야 했다.

비슈와나스는 아쉬쉬가 진정한 주체사상신봉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확실히 그에게는 인생에 대한 주체의 관점이 있었다. 샤르마가문에 주체의 대를 이처럼 믿음직하게 이어가는 후손이 있다는것이 더없이 자랑스러웠다.

비슈와나스는 아쉬쉬가 박사원과정만 마치면 그에게 공식적으로 《주체사무실》을 인계할 생각까지 하고있었다.

나이 80을 훨씬 넘겼으니 《주체사무실》을 주체의 길을 가장 멀리 갈 후대에게 넘겨주고싶은것이 그의 마음이였던것이다.

현재 킹즈 콜리쥐의 재학중인 아쉬쉬의 동생 마니쉬도 주체사상학습을 열심히 하고있었다.

두 손자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비슈와나스가 그곳에 자주 가기때문이였으며 또한 그들이 인디아에 올 때면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였기때문이였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다.

그 시간이면 또 어김없이 비슈와나스는 전화를 받았다. 그 전화는 무케시 샤르마에게서 오는 전화였다. 때로는 지방도시에서, 때로는 해외에서…

무케시는 그 어디에 가서 그 무슨 일을 하든 전화시간을 잊지 않았으며 어김없이 지키였다. 그것은 생활의 철칙이였다.

어제는 캄팔라에서 전화하더니 오늘은 아크라에서 전화했다.

《…어제 우간다의 신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프리카지역토론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우리회사 직원들에게 주체사상소책자들을 다 나누어주었습니다. 다음달에 연구토론회를 조직하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가나의 정객들을 만나 합의하고 현재 건설중에 있

는 우리 소인디아촌에 주체사상연구소조를 내오려고 합니다.》
그 전화는 단순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전사가 지휘관에게 하는 보고였다.
무케시는 아들이기 전에 전사였으며 기업가이기 전에 주체사상신봉자였다.
그들은 하루도 건늠없이 전화했으며 매일 토론했고 매일 줄기차게 사업을 전개해나갔다.
무케시는 기업을 우간다에 꾸려놓은데 이어 가나, 르완다에로 확장하고있었다.
우간다는 신봉자들이 비교적 많은 나라였다. 현재 국제연구소 리사이며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인 바구마 이쏘케(우간다 물, 토지 및 환경성국무상)도 거기에 있었다.
아프리카각국의 신봉자들은 불안정한 사회정세속에서도 아프리카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고있었다.
무케시는 가는 곳마다에서 더욱 높아가는 주체사상의 열풍을 뜨겁게 느끼며 가나에로 왔던것이다.
그는 우간다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가나대통령과는 친구지간이였다.
무케시의 기업은 국내를 벗어나 해외에로 점점 확장되고있었다.
무케시는 지금 가나정부와 협력하여 아크라에 소인디아촌을 건설하고있었다.
인디아의 모든 은행들이 무제한한 차관을 주며 무케시를 후원하고있었다. 그만큼 무케시는 사람들속에서 신망이 있었다.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는 큰 기업인이였지만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으며 신용을 귀중히 여기였다. 또한 그는 모든것을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설계했고 집행해나가고있었다. 아마도 그것이 주위사람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믿음을 자아내게 하는것인지도 몰랐다.
무케시가 아시아, 아프리카에 기업을 늘여갈수록 주체사상연구보급망도 그만큼 늘어갔다. 그는 새로 개설되는 자기의 모든 기업들

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을 우선적으로 내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었다.

《소인디아촌이 가나에서 주체사상촌이 되기를 바란다.》

비슈와나스는 무케시에게 이제 조직하게 될 연구소조에 정부관리들을 망라시킬데 대해 강조하였으며 또한 연구소조조직에서 지켜야 할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주었다.

그들은 부자이기 전에 주체사상연구조직의 한 성원들이였다.

무케시의 처도 마찬가지였다.

키는 크지 않아도 안면이 매우 넓은 키란은 직업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주체사상에 대해 선전하고있었다.

키란은 나라의 상업회의소 부소장이였다.

활달하고 락천적이며 사리정연하게 말을 할줄 아는 키란은 대통령과 수상이 그 어디에 가든 녀성대표로 항상 동행하며 인디아의 리익을 대변하고있었다.

부단히 넓어져가는 그의 활동범위는 곧 주체사상선전의 범위이기도 하였다.

키란은 주체사상연구녀성협회 회장이였던것이다.

그는 자기의 사업대상에 있는 모든 녀성들을 한사람한사람 그 협회에 인입시켜나갔다. 전국적인 조직인 이 협회에는 이미 수백명이 망라되여있었다.

2010년 3월 12일.

뉴델리에서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 제13차회의가 진행되였다.

이 회의에서 무케시 샤르마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으로 선출되였다.

누구보다 기뻐한것은 오가미 겡이찌였다.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는 전날 도꾜에서 왔던것이다.

각 대륙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아시아지역 연구소에 이처럼 리지적이고 활동적이며 사회적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참모장》으로 선출된것은 금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틀을 마련한것으로 되는것이였다.

지역연구소 리사장으로서는 하리쉬 굽따가 선출되였다.

리사장이였던 레기에 라나툰게는 병으로 그 전해에 애석하게도 사망하였던것이다. 그에게는 자식들이 많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주의 길을 걸으라는 유언을 남기였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크리케트선수인 아르준이 그의 맏아들이였다. 현재 스리랑카의 체육상을 하는 아르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고있었다.

지역연구소 리사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면서 지역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화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리사회회의가 있은 다음날인 3월 13일.

뉴델리에서는 《자력갱생—자주에로의 길》에 관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새로 선출된 하리쉬 굽따 지역연구소 리사장과 무케시 샤르마서기장이 이 토론회를 능숙하게 조직운영해나갔다.

토론회의의 주제인 《자력갱생—자주에로의 길》은 각이한 직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합되는 실천적인 문제인것으로 하여 모든 참가자들이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주체사상의 현실적의의와 생활력을 극구 찬양하는 목소리가 시종 회의장을 울리였다.

비슈와나스는 오가미 겡이찌가 뉴델리에 온 기회에 토론회를 하나 더 조직하고싶었다. 지역연구소 리사장과 서기장의 직책을 새로 수행하는 하리쉬 굽따와 무케시 샤르마의 열의도 대단히 높았다.

이렇게 되여 3월 20일 뉴델리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인디아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련합토론회가 성대하게 진행되게 되였다. 주제는 《태양절기념》이였다.

무케시는 토론회끝에 연회도 마련하였다.

한잔 술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것이다. 연회장에서 사람들은 더욱 화기애애하여 서로의 우정을 두터이 하였다.

하나의 리념아래 모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무엇이랴. 이 모든것을 위해 그는 부지런히 기업을 하고있는것인지.

사람이 돈만 알면 인차 돈벌레가 되는것이고 돈벌레가 되면 그는 벌써 인간으로서의 사회적가치를 상실하게 되는것이다.

더 많은 기업인들이, 각이한 직업을 가진 더 많은 사람들이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대렬에 들어서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생활의 사활적인 요구로부터 시대의 사상을 스스로 받아들이고있기때문이였다.

아쉬쉬도 그랬다.

이 토론회들에 참가하여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들이 그토록 열렬히 토로하는 심장의 웨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의 걸음걸음은 이미 《자력갱생－자주에로의 길》을 걷고있었다.

다음번엔 조선을 함께 방문하자고 하는 비슈와나스에게 아쉬쉬는 말하였다.

《할아버지! 나는 주체사상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그리고 그 연구보급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를 한 다음에 조선을 방문하겠습니다.》

기특하였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절로 계속 공부하고있었다. 높은 급의 고등교육을 다 마쳤는데도 그는 시대의 선진사상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무기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 계속 진지하게 파고들고있었다. 그는 법률, 금융, 상업 등 자기가 배운 모든 학문에 주체의 원리를 부단히 적용해나가고있었다.

샤르마가문은 대를 이어 모두가 주체의 원리들을 학습하고있었으며 자기들의 실천활동에 구현하려고 노력하고있었다.

가문을 고귀하게 만드는것은 혈통이 아니라 정신이였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 그 무슨 일을 하든 인류의 자유와 진보, 평화를 위한 주체의 한길우에 서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후손들모두가…

6. 아버지조국

흔히 사람들은 어머니조국이라고 한다. 아마도 그것은 어머니란 말보다 더 좋은 사랑의 대명사가 없기때문이리라.

허나 우리의 주인공은 가장 사랑하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아버지에 비겨 표현한다.

《조선은 나의 아버지조국이다!》

비슈와나스는 생일 84돐을 맞는 2010년 9월 15일 벗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전에도 그는 인디아는 자기의 고향이고 조선은 아버지조국이라고 종종 말하군 하였다.

누구나 생일날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과 마주앉는다.

세상에 태여난 이날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뜻깊은 날이 있으랴.

부모의 생일날에 자식들은 자기를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고저 할수 있는 성의를 다한다.

그래서 이날이면 다 커서 헤여져 살던 자식들이 한자리에 즐겁게 모여앉는것이다. 부모와 자식간에 가장 혈육적인 감정이 이날에 흐른다고도 할수 있다.

비슈와나스의 생일날에도 례외가 아니였다.

병아리들이 어미품에 모여들듯이 숱한 자손들, 숱한 친지들이 이날이면 스스로 그의 앞에 모여왔다.

여섯자식과 그들의 자녀들이 모두 국내외에서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기업과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있는것은 비슈와나스의 힘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또한 그는 기업도 기업이거니와 항시 자식들의 수양에 주의를 돌려왔고 그들이 인생의 옳은 길을 가도록 지금도 가르치고있었다. 이런 가장이기에 그의 생일날이면 가문은 명절로 흥성이였다. 모두가 그의 집으로 모여왔다. 저마다 값진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너희들이 나의 생일날에 찾아오는것은 고맙다. 하지만 나는 다음해부터는 나의 생일을 주체의 나라에서 쇠려고 한다.》

이것은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그해에 비슈와나스가 자식들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다음부터 정말로 자기의 생일을 해마다 꼭꼭 아버지조국에서 맞고있는것이였다.

2010년에 이르러 벌써 16년째다.

해마다 아버지조국에는 세계의 자주화를 위해 무엇인가 일을 해놓고 가야 한다는것이 그의 드팀없는 신조였다.

이해에도 그는 부지런히 일하였다.

3월에 뉴델리에서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회 제13차회의와 《자력갱생－자주에로의 길》의 주제로 된 지역토론회, 《태양절기념》주제의 련합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그는 쉴새없이 평양으로 왔다.

태양절을 맞으며 그는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12차회의를 소집하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세계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6월에는 로마로 갔다.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회 10차회의와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를 거기에 조직해놓았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회에서 새롭게 지역리사로 프랑스 랜느종합대학 교수인 린 씨노디윰을 추천하였다.

그러면 비슈와나스가 왜 린 씨노디윰을 지역리사로 추천하였는가.

그것은 린 씨노디윰이 쓴 론문 《현세계에서의 선군정치의 혜택》이 참으로 잘되였기때문이였다.

글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린 씨노디윰은 론문에서 군사선행의 선군정치의 사상적기초와 선군정치의 원리와 원칙에 대해 그리고 조미대결의 력사와 선군정치의 유효성, 선군정치와 그의 핵전략, 미국의 테로 등에 대해 아주 예리하게 정확히 분석하였다.

실력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역리사회를 꾸려야 현실적으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이렇게 한사람한사람 알알이 골라 연구조직들의 질적구성을 강화해나갔다.

유럽지역 리사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토의되였고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맞으면서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화할데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결정서가 채택된 다음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를 랑독하게 되였을 때였다.

갑자기 비슈와나스가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 올리는 편지는 래일 채택합시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유럽지역의 리사들에게 비슈와나스는 결론적으로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 올리는 편지는 보다 의의있게 하여야 합니다. 나는 지역의 리사들만이 모인 이자리에서가 아니라 많은 나라 연구조직 대표들과 신봉자들이 모인 지역토론회장에서 전체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채택하자는것입니다.》

유럽지역의 리사들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들은 모두 비슈와나스의 제의에 찬동하였다.

이렇게 되여 **김정일**장군님께 올리는 편지는 빌라 에우르(유럽마을이라는 뜻)호텔의 넓은 회의장에서 채택하게 되였다.

《세계자주화와 평화실현, 〈세계화〉반대투쟁에서 유럽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유럽지역 주체사상토론회는 성공적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축하연설을 하였고 에드몽 쥬브는 《독자적인 유럽건설은 〈세계화〉의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선의 선군정치가 세계정치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 린 씨노디움의 연설은 매우 실천적이였다. 환갑이 넘도록 한생을 학문연구에 다 바쳐온 녀성과학자의 예리한 분석과 판단력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 모든것을 치르고 이해의 9월 평양에 온 비슈와나스였다.

그는 해마다 9월 9일직전에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일을 경축하는 행사들에 참가한다. 그리고는 반드시 만경대고향집을 찾는다. 그다음 자기에게 참된 삶을 안겨준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스승을 뵈오려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한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생일을 보낸다.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의 생일날을 함께 보내주신 영광의 그날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려는듯 그는 해마다 그날이 오면 아버지조국, 주체의 나라에서 자기의 정신적수양을 쌓아가는것이였다.

그래야만이 그는 이 세상에 자기의 출생과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는듯싶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해마다 그의 생일을 잊지 않으시고 생일

상을 차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그대로를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 부어주고계시였다.

위대한 아버지가 변함없이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사랑의 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였다.

그 품에 안겨 생일을 맞는 아침이면 인디아, 영국, 카나다, 미국 등 국내외에 살고있는 모든 자식들의 전화와 축하통보문들이 평양으로 온다.

평양은 그의 가문과 친지들의 눈길을 집중시킨다.

그는 자손들에게 선친이 어떤 길을 걸으며 무엇을 원하고있는가를 말없이 자기의 행동으로 깨우치고있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걷는 길에 따라나서기마련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이고 가정의 대는 아버지에 의하여 이어진다.

그렇게 놓고보면 그의 표현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였다.

무엇을 더 설명하랴.

《아버지조국》!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인생사가 비껴오는데.

한생의 체험으로 그의 심장은 이렇게 웨치고있었다.

온 세상을 지나가보라. 모든 사조의 영예 캐여보라. 지나간 시대들을 다시금 살펴보라. 세상엔 없으리라,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자유와 존엄을 떨치는 이런 나라는…

주체의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아버지가 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에게 있어서 그대로 아버지조국이였다.

《아버지조국》!

이 말이 이제는 나에게 전혀 낯설지 않다. 오히려 이 말은 그 의미가 참으로 깊이있게 안겨와 이 가슴에 주체의 나라에서 태여나 주체의 인민으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불러일으켜주는것이였다.

7. 아름다운 산천에서 울다

한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멀리 수평선우엔 서서히 움직이는 고기배들, 가까이 기슭엔 각이한 모양의 기암괴석들…

특히 그 생김새도 곱거니와 허리와 절정에 몇그루의 늙은 소나무가 자라고있는 립석(선돌)의 모습은 볼수록 황홀하다. 그 주변에는 소나무가 우거져있는 바위섬들, 머리우엔 끼르륵 끼르륵 울며 날아예는 갈매기떼…

오, 아름다워라, 해안과 바다의 절경이여!

여기서 해수욕을 하며 섭조개를 줏고 꽃게를 잡고 그것으로 어죽을 쑤어먹는 그 즐거움이란!

비슈와나스는 젊은이들처럼 바다물에 첨벙 뛰여들순 없어도 자맥질하는 사람들을 보며 빙그레 웃고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줄이 흐르는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물속에서 솟구치며
조개잡은 두손을 하늘에 쳐든다는것은
아— 아— 환희에 넘친 나의 목소리가
수평선 한끝으로 울려간다는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저마다 붐비며
가마를 걸고 숯불을 피우며 돌아간다는것은
흰바위에 걸터앉아 한껏 마시며
서로서로 말하고 즐겁게 웃는다는것은

쟁글쟁글 내려쪼이는 해볕을 받아
은구슬 금구슬로 반짝이는 물결이여

가없는 너의 품에 안겨 젊어진 이 모습
사진에 담는것도 즐거운 일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소란스런 도시를 떠나
이 세상 명산중에 명산에 안긴다는것은
내 이미 한생을 걸어온 존재이지만
꽃과 같은 처녀들을 바라봄이 죄될것이 무엇이랴
…

노래가 흐르고 웃음이 피여나는 해금강이다.

예로부터 바다명승이라더니 그것은 이 해금강을 두고 한 말이런듯싶었다.

날씨도 쾌청한 2010년 9월 18일이다.

오늘아침 금강산호텔에서는 수백명의 외국관광객들이 자기들의 일정에 따라 비로봉, 만폭동, 구룡연, 해금강 등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갔다.

하늘을 찌를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1만 2천의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모양을 닮은 기암들, 거대한 층암절벽들과 서로 다른 깊은 계곡들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담소와 못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흘러내리는 구슬같은 맑은 물, 무지개를 이루며 쏟아져내리는 무수한 폭포들을 며칠이면 다 볼수 있으랴.

슬기로운 인민의 지혜와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수많은 절간들과 불상조각들, 탑, 비, 부도를 비롯한 문화재들은 얼마이며 명산에 깃든 전설과 시, 노래, 회화작품들은 또 얼마!

예로부터 경치가 특출하게 뛰여난 명승지로 알려져있는 금강산은 7세기 말엽부터 내외에 더욱 소문나게 되였다.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세상에 떠돌고 어느 나라의 시인은 조선의 금강산을 한번 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하였다하거늘 어찌 세계의 관광객들이 여기를 스칠수 있으랴.

오랜 세월에 걸치는 구조운동과 풍화작용, 침식작용, 해식작

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금강산의 장엄하고 수려한 풍경은 그 어떤 인위적인 손질로써는 도저히 흉내낼수 없는 자연미의 절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여기 해금강에도 관광객들로 붐빈다. 그들은 저마다 웃고 떠들며 사진기를 번쩍인다. 탐승의 길에 오른 그들의 얼굴마다에 비껴흐르는 아름다움과 평화의 웃음을 나는 본다.

나는 그들과 무랍없이 마주앉았다.

한가운데 숯불이 피여나고 바다망둥어가 구수히 구워지는 자리는 물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들모두는 말하였다. 금강산은 천하절경이라고. 조선팔경(예로부터 전해오고있는 조선의 8개의 절경. 백두산, 평양, 금강산, 묘향산, 부전고원, 지리산, 해운대(부산), 불국사(경주))은 정말 아름답다고.

세상사람들은 분렬된 조선의 남쪽지역에도 오가고있었다. 일본의 한 교수는 2년전에 남조선에 갔다왔다고 하며 다른 한 교수는 바로 열흘전에 갔다왔다고 한다.

비슈와나스는 침묵이다.

세계를 돌아봄은 누구에게나 차례진 자유이다. 그것을 가지고 말할것은 없다. 물론이다.

나는 생각해본다. 한민족을 수십년이나 분렬시켜오는 무정한 세월이 아마도 호기심많은 세상사람들을 이쪽저쪽으로 다 부르게 한것인지.

분렬된 나라의 량쪽을 다 돌아보고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것도 누구에게나 차례진 자유이다. 물론이다. 모든 곳을 다 돌아보고 세상의 옳고그름을 정확히 말하기를 나는 바란다.

이 땅에 그 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 산천을 지키고 평화를 원하는가?

조선의 남단은 외세가 틀고앉은 땅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바로 그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됨으로써 생겨난 문제이다.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여.

나라의 존엄을 지켜, 세계의 평화를 지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든 영웅적조선인민이 자기 조국의 분렬을 두고 터치는 이 목소리를 들어달라.

《조선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미국이다.》

나와 마주앉은 이들은 력사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지만 이 가슴속에는 눈물이 흐른다.

산천도 입이 있다면 말하리라.

한 나라, 한강토, 한민족이 이렇듯 장장 반세기를 넘어 언제까지 둘로 갈라진채 세계의 참관지로 되여야 한단 말인가.

자주의 목소리가 세계를 진감해가는 이 21세기에 외세에 의해 갈라져 신음하는 민족이 이 세상 그 어느 대륙에 또 있단 말인가.

분렬된 나라의 량쪽을 오가며 명승지들을 다 돌아보는 그네들의 가슴속에 과연 이 민족이 안고있는 분렬비극의 쓰린 눈물이 얼마만큼이나 흐르고있는지.

보라, 저기 저 글발을.

《금강산관광객들을 동포애적심정으로 환영한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언제나 동포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마음의 글발이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것이 차단된 강산.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녘의 동포들이 붐비던 산천이다.

남조선에서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출현함으로써 북남사이의 모든 대화와 협력은 파탄되였다.

가슴아프다. 이 땅에 흐르는것은 불신과 대결의 감정,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초긴장…

바로 이런 산천에 그 아름다움으로 하여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여드는것이다.

허리가 잘린 강토에도 년년이 계절은 오고 꽃은 피고 단풍은 물든다.

여기 해금강의 해안을 따라 조금 걸어나가면 남쪽에 닿으련만 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지맥으로 잇닿은 이 나라의 북남을 걸어서 오가지 못하고 다시 본국에 갔다가 다른 나라에 가듯이 비행

기를 타고 와야 한단 말인가.
볼수록 아름다운 세계의 명승이여!
정녕 여기에 세계의 평화가 깃들었는가.
수려한 이 산천의 설레임은 나의 귀전에 허리잘린 몸을 붙안고 통일을 애타게 부르는 겨레의 목소리로 들려온다.
민족이 바라는것은 북남관계의 파국상태해소이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 겨레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확고부동해지고있다.
산천은 설레이고 관광객들은 웃고있는데 나의 마음은 운다. 강산의 아름다움처럼 맑고 깨끗한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에 민족분렬의 아픈 눈물이 흐르고있다.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모습을 만방에 떨치며 자주적삶을 당당히 누려가는 이 나라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런 민족비극의 피눈물이 흐르고있음을 세계의 량심이여, 절규해다오.
저녁.
낮에는 줄곧 말이 없던 비슈와나스의 말문이 열렸다.
금강산호텔의 창문을 열어젖히고 높아진 가을날의 밤하늘에 총총히 내돋기 시작하는 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자못 숙연하다.
《지난 6월 중순이였지. …》
그날도 그는 주체사무실에 앉아있었다.
정문에서 전화가 왔다. 손님이 찾아왔다는것이다.
누구라구?
조선대사관사람이라는 말에 그는 대뜸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맞고보니 그는 남조선《대사관》의 참사였다.
그는 웃으며 《로얄쎌로르위스키》2병을 내놓았다. 그것은 아주 고급위스키였다.
그가 하는 말.
《비슈와나스선생, 나와 함께 대한민국을 방문해보지 않겠습니까?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주겠습니다.》
참으로 끈질기다. 50여년전부터 주위를 감돌며 범접해오는 한국

이다. 기업을 한창 펴던 그 시절엔 남조선을 방문하면 요구하는 자본을 다 대주며 도와주겠다던 그들이다. 그럴만도 한 일이다. 세계광고업의 일환인 《인터라즈》총사장으로, 유명한 정치신문인 《인디안 타임스》주필로 내외에 명망이 높은 그는 끌어당길만한 인물이였던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국제**김일성**상리사회 서기장이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신념을 안고사는 한 인간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된 뼈아픈 추억은 세월의 흐름으로도 결코 뺏을수 없다는것을.

이제는 근 반세기전의 일로 되였지만 아차 실수하여 보기좋게 쓰러졌던 그날을 정녕코 잊지 않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충돌하여 나딩굴었던 그의 자동차는 그후 그의 마음속에서 오늘까지 더욱 용을 쓰며 가속도로 달리고있는것이였다.

마음속의 그 가속답판을 한시도 늦춤없이 한생을 꽉 밟고사는 열정의 인간!

무진한 힘으로 쉬임없이 몰아가는 그 인생렬차를 그 누가 감히 멈춰세울수 있으랴.

짐짓 침묵속에 있던 비슈와나스는 그 근엄한 표정을 조금도 달리하지 않고 물었다.

《당신 정말인가?》

이외에도 자기 말을 확인하는 비슈와나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자의 눈과 온몸에 생기가 도는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예, 예.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요구든지 받아들일 자세를 충분히 보이느라고 그자는 노상 갑삭갑삭하며 머리를 숙이였다.

《좋아, 그렇다면 내 말하지. 당신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라.》

삽시에 그자의 얼굴빛이 수수떡처럼 되였다.

《그거야…》

《그거야가 뭔가. 이자 방금 당신 나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자는 당황해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비슈와나스는 성격그대로 소리쳤다.

《자기 나라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당신들의 말은 들어볼것이 없어!》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북남이 마주앉아 공동선언을 채택하고도 외세에 눌리워 그것을 리행못하는 남쪽이다. 조국통일기운이 고조되는것 같으면 강한 친미보수세력으로 《정권》의 자리를 갈아앉혀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외세가 수십년세월 틀고앉은 남조선이였다.

젊은 시절에 《나를 돈으로 살수 없다.》고 웨치던 비슈와나스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올수는 없었다.

《나에겐 남조선을 방문할 생각이 없어!》

거쿨진 몸집을 일으키며 비슈와나스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힌두어로 말하였다.

《남조선도 모르고 들여보내? 당장 끌어내가!》

곧 정문지기들이 달려왔다. 단번에 들어내칠 그들의 태도에 겁을 먹은 그자는 비실비실 달아나버렸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그렇게 쫓겨간 처지에서도 그자는 몇번 전화를 걸어왔다. 남조선에 가지 않겠으면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라고.

어리석은 놈들, 회유와 기만으로는 정의와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걸음을 돌려세울수 없다. 돈으로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것을 가리울수 없다.

이 세상의 어느곳에 가보는가 하는것은 자유이다. 특히 랭전이 종식되고 사람들의 사고와 리해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리라.

하지만 반세기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따라온 주체사상신봉자들의 1세들에게 있어서 저울질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들에겐 오직 한길뿐이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과 그 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따라가는 그 한길뿐.

비슈와나스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조선이 통일되는 그날에 백두산에서 한나산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나는 고령의 그가 한없이 돋보였다.

무엇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가.
그것은 자기가 믿는것에 대한 불변의 신념을 안고 끝까지 한길을 걸어가는 그사람의 정신력이다.
그렇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재부는 정신력이다.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확신하라!
하나된 이 나라 수려한 삼천리강토를 북단에서 남단까지 자유로이 오고갈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그날을 기다려 산천은 설레인다.
나도 그날을 보며 울며 웃는다.

8. 30년만에

금강산에서 돌아오는 날로 비슈와나스는 귀국준비를 서둘렀다. 한찬두는 의아해서 물었다.
《10월 10일 행사까지 참가하고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슈와나스는 자기가 언제 그렇게 말했던가싶이 오히려 통역을 의아하게 바라보며 대답하는것이였다.
《아니, 나는 곧 갔다와야겠습니다.》
모를 일이였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10월 10일까지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불편한 몸으로 혼자서 인디아까지 다시 갔다오겠다고 하니 그렇게 생각될만도 하였다.
그는 곧 떠나갔다.
비행장에서 돌아오면서도 우리는 그 리유를 알수 없었다. 모든것을 많은 사람들과 내놓고 토론할 때 봐서는 그처럼 허심탄회한 사람은 없을상싶지만 이처럼 어떤 때에는 돌연 그와 상반되게 행동하군 하였다. 특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것이 옆사람들의 만류에 부딪치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
고집스런 그 성격이 어디 가랴.

혼자 결심할줄 알고 단호하게 움직일줄 아는 그 본태는 여전하였다. 그래서 비슈와나스인지.

실지 그 나이에 이르면 본래의 성격도 누그러지고 천천히 마음을 다잡기마련이지만 그에게는 잠시라도 휴식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듯 했다.

그의 심장은 늙음을 모르는것인지.

아니였다. 그는 심장의 세찬 아픔을 항시 느끼고있었다.

그는 심한 심장판막염으로 하여 언제나 피순환의 장애를 받고있었다. 그래서 의사들과 한찬두가 밤을 밝히며 그의 옆에서 수고를 할 때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갈 길을 가고있는것이였다.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것이 체질화된 그의 본능인듯싶었다. 그래야만 그는 살수 있는것 같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뉴델리에서 주체사상과 조선로동당의 업적에 관한 전국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래서였다. 바로 그는 그것을 위해 급기야 떠났던것이다. 그는 그렇게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드리는 마음속의 선물을 마련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진정으로 조선로동당을 경모하고있었다.

조선을 수없이 오가면서 그는 **김일성**동지의 당인 조선로동당은 진정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이라는것을 보아왔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돌고돌며 그가 만나본 당수들과 정객들은 그 얼마였으랴.

그들의 모든 주장에는 옳은것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고 옳지 않은것도 있었다.

적지 않은 로동당, 공산당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있지만 실지 그들이 하는 일이란 불필요한 시위, 항의에 사람들을 내모는것뿐이였다.

하지만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은 달랐다. 시종일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것이 당의 정책이였고 로선이였다.

9월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동지를 변함없이 당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소식은 전체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대경사로 되였다. 더우기 주체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태양의 모습을 처음으로 뵈온 감격과 환희는 끝이 없었다.

비슈와나스는 세계의 통신보도들을 듣고있었다.

《교도》(일본), 《AP》(미국), 《신화》(중국), 《이따르－따쓰》(로씨야), 《AAP》(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각 나라의 통신들과 여러 신문, 텔레비죤방송들이 다투어 보도하고있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소식은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있어서, 아니 평화와 진보를 사랑하는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대사변이였다.

비슈와나스는 흥분되였다. 가장 뜻깊은 10월이 그의 앞으로 마주오고있었다.

그는 잠못들며 오래오래 사색에 잠겨있었다. 인류자주위업이 더욱 활짝 꽃피여날 밝은 미래를 내다보며…

그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고 비슈와나스는 또다시 조선으로 왔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기념행사에 참가한 그의 감격은 끝이 없었다.

2010년 10월 10일.

전날에 이어 이날에 또다시 받아안은 환희의 물결이 비슈와나스의 가슴속에 그냥 파도치며 밀려드는 저녁이다.

이 저녁 설레이는 마음이 어찌 그 한사람 마음만이랴.

약속이나 한듯이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날에 받은 느낌을 한껏 나누고싶어하는 각 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다.

《리사장선생, 장엄한 열병대오들에 답례를 보내시는 **김정일**총비서의 위대한 모습을 나는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김일성**주석의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

오가미 겡이찌가 하는 말이였다.

《리사장선생. 저 역시 오늘 새로운 젊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가마꾸라 다까오(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의 말이였다.

쏭치트 풀랄(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위원장)도 흥분하여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오늘 우리는 **김일성**주석과 꼭같으신 **김정은**각하의 모습에서 주체위업의 밝은 앞날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봉자들의 2세에 속하는 오랜 사람이였다.

로씨야 원동국립종합대학의 력사학교수이며 박사인 올가 빠블로브나 옐란쩨바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나는 사회주의하에서 수십년, 시장경제하에서 수십년을 살아보았습니다. …

조선사람들이 우리 원동에 와서 하루만 살아보면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될것입니다.

나는 조선사람들에게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하고싶습니다.》

사회주의하에서 살아보았고 사회주의를 잃어보았고 오늘은 시장경제의 압박속에서 시달리고있는 그는 후계자가 위대해야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수 있다는 진리를 한생의 체험으로 깨닫고있었던것이다.

《조선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가 계시여 조선인민은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강성국가를 일떠세울것입니다.》

《우리는 영웅적조선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을것입니다.》

…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그들모두의 얼굴마다에는 이날에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으로 한껏 피여나는 홍조가 짙게 어려있었다.

이들속에는 1세로부터 2세, 3세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다 있었다. 언어와 피부, 직업과 나이는 다 달라도 한마음한뜻으로 평양에 모인 주체의 벗들이였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둘러보는 비슈와나스의 감회는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던 그날에로 이어져갔다.

그날은 1980년 10월 10일이였다.

그처럼 뵈옵고싶던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 나오시는 순간 모두는 얼마나 환희에 설레였던가.

그때에 벌써 또 한분의 영명한 수령을 모심으로 하여 조선의 찬란한 미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온것이다.

력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그때로부터 흘러간 30년세월 지구상에는 정말로 많은 사변들이 있었다.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들이 터졌고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제국주의세력의 횡포한 도전과 패권주의적전횡은 전례없이 우심해졌다. 이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의 소용돌이속에서 어떤 나라 당은 변색되였고 어떤 나라 당은 무너졌으며 어떤 나라 당은 명색만 남았다.

력사의 이 모진 광풍속에서 세계의 눈길을 모아세우는 불패의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흔들림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회주의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조선로동당이였다.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순결성을 고수하고 령도적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조국과 민족앞에 그리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력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의 모든 업적은 **김정일**동지를 령도의 중심에 모시였기때문에 이루어진것이였다.

오늘의 열병식은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온 조선로동당의 위력과 불패의 통일단결을 힘있게 과시하는 승리자들의 자랑찬 모습이였다.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던 그날의 그 환희의 감정이 오늘 비슈와나스의 가슴에,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가슴에 다시금 솟구쳐올랐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창조해가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이 시각 세계자주위업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고있었다. 그들모두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치고있었다.

30년전 그날에 대집단체조 《당의 기치따라》와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에 력력히 나래치고있던 조선의 기상이 오늘에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과 대경축야회 《번영하라 로

동당시대》에 더욱 력력히 나래치고있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 계속되는 조선의 불패의 모습은 주체사상의 생활력을 보여주는 산증거로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였다.

30년! 한세대가 흘렀다.

비슈와나스는 이 모든 력사의 증견자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더불어 반세기 그는 자주적인 인간의 위력과 그들에게 돌려지는 최상의 배려를 보아왔다.

보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을 안고 이 저녁 신봉자들은 잠못들며 설레이였다.

다음날 비슈와나스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경험교환회를 조직하였다.

인민문화궁전 원탁회의실은 아침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과 대표들로 붐비였다.

《우리모두 허심탄회하게 경험들을 교환합시다. …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이며 앞으로 해야 할 일, 가깝게는 자기 나라에서 주체사상을 어떻게 구현해나가겠는가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비슈와나스가 서두를 떼자마자 저마다 연단으로 나섰다. 세계가 모인 이 연단에서 자기의 경험과 심중을 터놓는것을 커다란 영예로 간주하는 각국의 신봉자들이였다.

시간은 제한되여있는데 모두가 발언을 요구하므로 일부 토론문들은 서면으로 배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인상깊은 그 많은 토론중에서 나는 다만 여기에 야쎄크 뽀네베르스끼(뽈스까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의 토론만을 요약하여 소개하려고 한다.

《**김일성**주석의 천재적능력은 그 어디에도 비교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이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을 조선의 현실에 구현하였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영원한 제자로서 그이의 사상을 전세계에 보급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이자

리에 모였습니다. …

유감스럽게도 90년대초 우리는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좌절로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딸라의 공격을 극복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더우기 참기 어려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활동들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무자비한 탄압이였습니다.

이런 정세하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한다는것은 목숨을 내건 투쟁이 아니라고 말할수 없었습니다. …

점차 나이든 사람들만 남았고 젊은이들과 중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체사상은 부인할수 없는 과학성과 가리울수 없는 생활력으로 하여 대학생들속에서 계속 연구보급되고있었습니다.

력사의 흐름과 함께 미국의 허위선전은 타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여 와르샤와주체사상연구소조가 새롭게 결성되였고 소조는 인차 전국에 확대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로작들을 우리는 대대적으로 연구보급하였습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는 인류의 수령들이십니다. …

우리들의 완강한 활동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에 소개되였으며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과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선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이 활동은 그 누구의 요구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운명의 요구로부터 스스로 시작된것입니다. …

나는 당신들앞에 인생의 끝까지 주체의 길에 서있을것을 담보합니다.

새로운 더 좋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체의 기치아래 단결합시다.

평화와 안전이 넘치는 세계를 향하여!》

피를 뱉는듯 진정이 어린 그의 토론은 청중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모두가 한마음이였다.

그들이 모여앉으면 언제나 할 말이 많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 어떤 난관도 시련도 달게 여기며 인

류의 위대한 사상을 전세계에 연구보급하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느낄줄 아는 멋들어진 인간들임에야!

비슈와나스는 미더운 이들의 모습에서 막을수 없는 자주의 흐름을 더욱 력력히 보는듯싶었다.

오늘의 경험토론회는 례년에 없이 더욱 활기를 띠고있었다. 그렇다. 이들모두의 가슴에 새로운 청춘의 활력이 부어진것이였다. 조선의 10월과 함께 이들모두의 가슴에 더욱 눈부신 래일의 세계가 펼쳐진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생각하고있었다.

앙양되는 력사의 이 흐름에 국제연구소를 따라세워야 할 자기의 임무를 그는 무겁게 생각하고있었다.

세계자주화위업이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10월의 대축전장에서 자주위업의 명맥이 새 천년기에로 꿋꿋이 이어져온 30년의 자랑찬 로정을 더듬어보는 비슈와나스의 가슴에는 이제 또다시 30년, 아니 무궁토록 인류자주위업을 이끌어갈 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안겨오고있었다.

9. 더 젊은 사람을 찾을수 없다

2011년 4월 13일

시간이 갈수록 회의는 더욱더 열기를 띠였다.

비슈와나스리사장의 보고에 이어 앞을 다투어 지난 1년간의 활동정형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토로하는 각 대륙의 집행위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력력히 비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있는 그들의 온몸은 힘과 열정으로 약진하고있었다.

이윽하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서기장인 마떼오 까르보넬리(로마3종합대학 법학교수)집행위원이 결정서를 랑독하였다.

《 …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인류의 대정치축전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의 창시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성대히 소집할것이다.

2. 주체사상세계대회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세계각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이 참가하여 세기에 길이 빛날 위인의 업적과 주체위업의 창창한 앞날에 대한 토론들이 광범히 진행될것이다.

3.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활동하고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소집되는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앞두고 자기 대륙, 자기 지역, 자기 나라에서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여나가도록 할것이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확대회의

2011년 4월 13일. 평양 》

결정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열렬한 박수로 결정을 지지하는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비슈와나스는 리사회 집행위원회 12차회의후 뛰며 달려온 지난 1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활동이 모든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여온 나날이였다.

2010년 한해에만도 10개의 나라에서 10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이 새롭게 결성되였다. 수시로 진행되여온 전국토론회와 련합토론회, 소조토론회들은 그 얼마…

비슈와나스는 2011년 3월 5일 방글라데슈의 수도 다카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전국토론회에 초청되였다.

그 토론회에서 바로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이 발기되였다. 그

들은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4월에 주체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진행할것을 발기하고 세계각국의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호소하였던것이다.

비슈와나스는 그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였다.

비슈와나스는 다카에서 돌아오는 길로 3월 12일 뉴델리에서 《자력갱생과 자주—세계평화에로의 길》이라는 의제로 인디아주체사상전국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발기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인디아전국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동지께 삼가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서 비슈와나스는 토론회 참가자들이 2012년 4월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호소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는것을 보고드리였다.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에 대한 발기는 모든 대륙에서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 확대회의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소집을 정식 결정서로 채택하였던것이다.

회의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어서고있었지만 시작인듯 여전히 활기를 띠고있었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은 한세기에 한번밖에 없는 최대의 기념일입니다. … 이날을 맞으며 진행하는 세계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대륙들에서도 다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합니다. …

국제준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외에 지역준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조직하고 초청하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

비슈와나스는 거침없이 회의를 이끌어갔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인 까믜지꾸 옥따브(킨샤샤종합대학 학부장)집행위원이 일어섰다.

《나는 회의결정을 적극 지지하면서 세계대회국제준비위원회를 어떤 사람들로 조직하겠는가에 대해 제기하려고 합니다.

나는 우선 국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비슈와나스리사장선생을 추천합니다.》

모든 집행위원들이 박수치며 이에 호응하였다.

하지만 손을 가로젓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슈와나스였다.

《아닙니다.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집행위원들이 국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명망이 높은 비슈와나스선생이 하여야 한다고 한마디씩 하였다.

《본인이 요구하든 안하든 위원장은 무조건 리사장선생입니다.》

까믜지꾸 옥따브는 다시 일어서서 더욱 열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대중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

손세를 써가며 말을 하는 까믜지꾸의 모든 동작은 마치 춤을 추는듯 하였다. 아프리카의 무성한 열대수림마냥 확확 열기를 내뿜는 그의 온몸은 활력에 넘쳐있었다. 그도 이제는 환갑나이에 이르렀지만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언제나 20대청년을 방불케 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여전히 젊은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때였다.

《여기 이자리에 비슈와나스선생보다 더 젊은 사람을 찾을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장내에 던지며 일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따교수였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몸매를 가진 그는 대답을 기다리는듯 기지가 번뜩이는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는것이였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

즉시에 여기저기서 대답이 울려나왔다.

《더 젊은 사람을 찾을수 없다.》

《더 젊은 사람을 찾을수 없다.》

마떼오 까르보넬리도, 오마르 로뻬스 베레스(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부위원장)도, 키스 벤네트(국제**김일성**기금사무국장)도, 알베르또 아나야 꾸띠에레스(메히꼬로동당전국조정위원회 조정

자)도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화답하였다.

《더 젊은 사람을 찾을수 없다.》

《더 젊은 사람을 찾을수 없다.》

순간에 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휩싸였다.

회의기록을 맡은 녀성들도 즐거운듯 웃음을 띠며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있다. 그 녀성들은 국제회의장들에서 해마다 만나군 하는 국제연구소 사무국성원들인 오호리 기요꼬, 나까하라 사유리, 다끼자와 히로꼬, 리미순이다.

까믜지꾸는 결론적으로 말하였다.

《대중의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이기때문에 전원찬성으로 비슈와나스선생이 국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락착되였음을 알리는바입니다.》

박수…

박수…

비슈와나스는 더는 어쩔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이며 어이없는 웃음을 짓고있었다.

까믜지꾸는 계속하여 국제준비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들을 한사람한사람 추천하였다.

이렇게 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확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진행할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대회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다.

회의는 끝났지만 참가자들은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설줄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앞두고 보람찬 일들을 설계해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환희와 감격, 커다란 기쁨이 넘쳐흐르고있었다.

모두가 한데 어울려 사진을 찍었다. 배경에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확대회의 마크가 빛나고있었다.

이자리에서 제일 나이많은 사람은 비슈와나스였다.

하지만 이자리에서 그보다 더 젊은 사람은 찾을수 없었다.

10. 여담

바쁜 사람에게도 지난날을 추억하며 여담을 나눌 때가 있는것이다. 그런 사람의 여담은 보다 진실하고 인간적이다. 그것은 바쁜 사람일수록 그 누구보다 생활을 뜨겁게 안고 몸부림치는 인간이기때문이다.

2011년 9월 15일.

이날은 비슈와나스가 생일 85돐을 맞는 날이다. 이날은 또한 내가 그와 마주앉아 밤새도록 여담을 나누는 날이기도 하다.

비슈와나스는 울란바따르로 가는 길에 평양에 들린것이다. 40차로 되는 그의 조선방문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개최될 주체사상세계대회를 뜻깊게 맞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있는 비슈와나스였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확대회의 결정이 채택된 후 주체사상세계대회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세계의 곳곳에서 울리며 다채로운 행사들이 련이어 진행되고있었다.

비슈와나스는 장엄한 시대의 그 노래가 울리는 곳곳을 찾아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며 연구조직들을 돌아보고있었다.

그가 가는 길이 어찌 탄탄대로일수만 있으며 년로한 그의 신상이 어찌 좋을리 있으랴.

그는 올해 7월 11일 심장수술을 받았다.

동아시아주체사상토론회를 울란바따르에서 진행하기 위해 그 조직사업으로 동아시아의 몇개 나라를 방문하고 자기 계획에 따라 런던으로 갔을 때 심장발작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년로한 나이에 과로한 피로가 겹쌓였기때문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수백년을 서있는 무성한 나무에도 세월의 년륜이 감겨져 락엽이 깃들 때가 있으니 사람의 한생인들 어찌 세월의 흐름에 실려가지 않을수 있으랴.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검사를 받고 곧 수술대에 오르게 되였다.

수축된 피줄에 스텐드를 넣는 심장수술이였다.

주변에 있는 그의 벗들과 세계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런던에서 사는 그의 넷째아들 나비쉬 취바에게 자기들이 도울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부탁하라고 매일같이 전보문을 보내왔다.

주체로 맺어진 뜨거운 인간들의 그 정에 떠받들려선가 고령의 몸은 서서히 회복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에게 온 수북이 쌓인 전보문들을 보면서 주체의 벗들이 갑자기 많아진듯한감을 느끼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신봉자들과 연구조직들은 급속한 속도로 늘어나고있는것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자산에 의해서 갑부가 되는것이 아니라 주체의 벗들이 많아 갑부가 되는듯한 심정이였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음미해볼수록 따를수록 심장이 이끌리는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였다.

비슈와나스는 자기의 인생길에 또 한번 빨간불이 가로막았다가 다시 파란불이 켜진 이상은 마음속의 가속답판을 더욱 힘있게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여 그는 비행기려행을 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몸이였지만 병원에서 서둘러 나와 아버지조국으로 향했던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위대한 스승이신 **김일성**동지께 마음속의 보고를 드리고 그는 울란바따르로 떠날 계획이였다.

이처럼 뜨겁고 열렬한 참인간에 대해 내 어찌 붓을 달리지 않을수 있으랴. 분망한 사업의 짬짬에 나는 써왔다. 다년간 그와 함께 걸어가며 보고 듣고 생각되는것들을 무디여도 서툴어도 나는 써왔다.

그렇게 쓴 글을 나는 이번 기회에 그앞에 내놓았었다. 교열이라도 받으려는듯 조심스럽게…

지금 그는 머리를 숙이고 울고있다. 늙은이답지 않게 손수건을 꺼내여 눈굽을 훔친다. 침묵속에 벌써 몇분이 지나갔다. 그는 금방 《인생렬차》의 마지막페지를 넘긴것이였다. 물론 《여담》이 없는 원고였다.

드디여 머리를 쳐드는 비슈와나스.

《나는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요. 하지만 나는 이 원고를 보고 우오.》

원고의 집필자인 나는 그앞에 무엇이라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다만 사실을 써넣으려고 노력했을뿐 실지 이 원고는 빈구석이 너무도 많은 글이기때문이다. 력사적인 측면에서도 그래, 형상적인 측면에서도 그래.

그러면 무엇이 그의 심금을 울리였단 말인가.

서툴었어도 그리고 구체적이진 못했어도 그속에서 보여오는 경건했던 소년시절과 지난날의 모든것에 대한 추억이였으리라.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띠염띠염 내뱉는 그의 말.

《나에게는 어린시절이 귀중하오.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되살려주어 감사하오.》

인간에게 있어서 추억처럼 고귀한 감정이 어데 있으랴. 아름다운 추억은 힘이 있는것이다.

동안을 두었다가 그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지로 나는 첫 원고료를 타고 울었소. 울면서 피. 엘. 쏜디를 찾아갔고 학장을 찾아갔소.》

이렇게 말하는 비슈와나스는 그 시절로 정말 되돌아간듯 눈물을 흘리고있다.

역시 인간에게는 유년시절, 소년시절이 제일 추억깊은듯싶다.

그는 품안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녀인이 아기의 볼에 입맞춰주는 연필화와도 같은 흑색사진이다.

나는 놀랐다. 85살에 이르고 손자, 증손자들을 줄줄이 거느린 그가 생애의 말년까지도 어린 자기를 안고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이처럼 소중히 품고다니다니…

그 사진을 보니 아기의 볼에 입맞추는 어머니의 모습처럼 이 세상에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는 없을듯싶다.

누구에게나 조국과 어머니앞에 지닌 영원한 의무가 있다.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노력은 누구에게나 한평생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숭엄하고 고귀한 추억의 노래를 불러주고있는것이다.

역시 인간의 감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무엇이였다.

그는 속삭이듯 말한다.

《나의 어머니가 살아 이 글을 볼수 있다면…》

나의 가슴에 젖어드는 그 목소리는 정말로 작품의 주인공의 독백이였다.

그러하리라. 좋은 일을 해놓고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싶음은 누구나 품고있는 생각이리라. 어린 날에도, 고령이 된 오늘날에도…

하지만 그런 날이 오면 선친들은 벌써 이 세상에 없는것이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더 빨리 인생을 다그쳐살아야 하지 않을가.

인생은 학교다.

아, 인간이 다시 태여날수만 있다면 걸어온 날들을 추리여 보다 멋진 인생의 날들을 수놓아보련만! 인생은 이생이 아니라 일생이렷다.

말하던 도중에 비슈와나스는 갑자기 자기 침실로 들어가더니 무엇인가 꾸레미를 들고나와 펴놓았다. 마치 자기 상념에만 잠겨있어 미안하다는듯이.

그가 내놓는 과자는 멋부려 그림과 글자들을 쓴 포장으로가 아니라 그저 기름종이에 싸있었다.

어서 들라고, 들어보라고 그는 나에게 재삼 권했다.

나는 한개를 집어들었다. 싸하고 특이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카레냄새인가고 물었더니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내가 잘 모르겠다는듯 고개를 기우뚱하니 그는 그것은 자기 로친이 여러가지를 섞어내는 향이라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하루일을 끝내고 저녁 7시경에 퇴근하여 자기는 로친과 함께 이 과자를 한고뿌의 차와 함께 먹는다고 했다.

또한 그는 덧붙여 설명하기를 자기가 집을 떠날 때에는 로친이 오래 건사하고 먹을수 있게 여기에 사탕가루를 넣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고보니 이 과자는 달지 않았다. 또한 공장에서 만든것이 아니라 집에서 밀가루를 반죽하여 과자만하게 뜯어 구운것들이라는것이 확연히 알리였다.

하지만 이처럼 귀한 보물이 어디 있으랴.

비슈와나스는 자기는 이것을 제일 좋아한다는것이였다.

그럴수밖에! 아마도 그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자기의 구미에 맞게 조리했기때문이든가 아니면 그와 살면서 그 맛이 온몸에 물들었기때문이리라.

그렇지 않다면야 비행기를 타고 수시로 대륙을 넘나드는 사람이 값진 포장으로 눈을 끄는 이 세상의 모든 진미를 놔두고 어찌 기름종이에 꾸린 이것을 귀하게 트렁크에 넣고 다닐수 있으랴.

진정이였다. 이 세상 그 어디에 려장을 풀어도 이 과자를 들며 한평생을 함께 살아오는 로친의 손길을 뜨겁게 느끼는 늙은이의 그 마음은.

소박하였다. 이럴 때 보면 그는 로친이 정성스레 꾸려주는 주먹밥을 싸들고 도시에 나들이온 농촌의 수수한 늙은이처럼 보여오기도 하였다.

허물없이 나는 말했다. 잘못 쓴것이 있으면 그대로 말해달라고.

그는 원고를 번지며 일부 틀린 지명이름들과 정확치 않은 수자들을 정정하였다. 나는 그자리에서 더 고칠것이 없는가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자기 로친네가 보고 기분상할수 있는것을 빼라고 했다.

그런것이 어데 있는가?

실지 여기에는 그런것이 없다. 있다면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혹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는지. 설사 그렇다한들 90고개를 바라보는 오늘에 와서야 그야말로 모든것이 여담으로 되겠는데…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감정이 손상될가봐 이상으로 끔찍이도 생각하였다. 하긴 결혼 60여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짧은가.

짧지 않은 그 세월을 파동없이 화목하게 흘러온 순결한 사랑의 물결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날과 날을 흐르리라.

사랑은 늙음을 모르는가보다. 그렇다. 사랑을 하면 영원히 젊어지고 사랑을 하지 않을 때에 사람의 마음은 늙는것이다.

누구나 사랑을 하면 세계는 보다 화목해질것이다.

사랑은 삶의 목적이며 산다는것은 곧 사랑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얼핏 보면 엄엄해보이기도 하고 어찌보면 무섭게도 보이는 인상이지만 실지 그는 착하고 다심한 인간이였다. 명성과 재부로 보아

그의 생활은 요란할것 같지만 실지 그의 의식주는 검소했고 그의 시간은 근면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다.

그는 한생 자기 감정, 자기 리념에 충실하였다. 그는 그처럼 진실한 사람이였다.

그런 사람들이 큰일을 하는듯싶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량해를 구한다. 둘이 앉아 여담삼아 나눈 오늘의 이야기까지 여기에 덧붙이는 이 필자의 체면없는 행위에 대해.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가 어찌 여담으로만 되랴.

나는 리해하고 감심하리라고 생각한다. 싼또쉬 꾸마리할머니가 이 글을 읽으면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수록 더더욱 로친을 끔찍이 생각하는 무뚝뚝한 령감의 사려깊은 그 마음을.

나는 마음속으로 바란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과감하고 강렬한 나의 주인공들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성스러운 그 길에서 더욱더 젊어져 사랑의 불길이 영원히 타오르기를!

종 장
삶의 궤도

렬차는 간다. 인생렬차는 간다. 누구나 태여나 한생을 몰아가는 이 렬차는 한번 간 길을 두번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기에 탈선되면 안된다. 전복되면 더더욱 안된다.

자기의 궤도에서 탈선됨이 없이 전복됨이 없이 한생을 성공적으로 몰아가자!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것이다.

하지만…

한생을 몰아온 인생렬차의 뒤길을 돌아보면 헛바퀴를 굴려온 사람도 있고 제자리걸음을 한 사람도 있다. 또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온 사람도 인생의 말년에는 한자리에서 머무르는것이 례사이다.

인간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기때문이다.

인생렬차의 궤도에는 여러 줄기가 있다. 《하느님》을 따라가는 줄기, 금전을 따라가는 줄기, 권력을 따라가는 줄기…

그 많은 줄기중에서 선택권은 사람마다에 있다.

어느 줄기를 따라가야 할것인가.

어느 줄기를 타야 인생렬차를 값있게 몰아갈것인가.

유구한 력사는 보여주고있다. 갈래많은 그 줄기에서 주체의 궤도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자주권을 행사하며 존엄있는 삶을 누리에 떨친다는것을 더욱 선명히,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주체의 궤도를 타지 못하면 인간은 순간에 노예의 운명, 굴종의 운명, 죽음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것은 이미 력사가 보여준

철리이다.

인류는 잘 달려가던것 같던 자기들의 인생렬차를 하루아침에 전복당하고 노예의 운명, 죽음의 운명을 당한 사람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가깝게는 지난 세기말 여지없이 붕괴된 동유럽의 일부 사회주의나라 지도자들의 운명이 그렇지 않은가.

《주체의 궤도를 따라나가야 한다. 주체의 궤도, 이것을 어기면 죽음뿐이다. 궤도를 어기지 말라.》

이것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전 대통령 번함이 남긴 유언이다.

자주의 길, 주체의 궤도를 따라가지 않는 지도자들과 인민들은 력사의 시련을 겪게 되는것이다.

주체의 궤도를 따라 인생렬차를 곧바로 몰아가는 사람만이 자기 운명의 주인, 력사의 주인이 되여 이 세상에 머리를 떳떳이 쳐들고 자주의 삶을 당당히 누릴수 있다는것은 수백만년의 력사를 통하여 인류가 찾은 사상이며 동시에 인류가 도달한 리성의 최고언덕이다.

보라, 세월이 갈수록 주체의 궤도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며 자기들의 인생렬차를 힘차게 몰아가고있지 않는가. 그 진동소리 대륙에 울려퍼진다. 온 지구를 진감한다.

주체사상의 빛발 세기를 밝혀 이 세상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에 넘쳐 자주의 한길로 보무당당히 행진해가고있는것인가.

그 보폭의 진동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아, 아, **김일성**민족으로 태여나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세기의 영광이여!

그 영광 가슴에 안고 나는 노래하련다. 자주화된 새 세계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의 영원한 빛발을 끝없이 따르는 만민칭송의 마음을 나는 끝없이 노래하련다.

나의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주인공이 오늘도 계속 주체의 궤도를 힘차게 달리고있기때문이다.

비슈와나스!

그는 투사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를 자주성을 주장하는 투사라고 높이 불러주시였다.

90고개를 바라보는 오늘도 그는 쉬임없이 대륙을 넘나든다.

비행기에 오를 때에는 꽃이 피는 봄이였는데 내릴 때에는 벌써 잎이 지는 가을이다. 여름은 상공에서 지나갔는가.

이렇듯 위도와 경도를 넘어 계절을 앞당기며 그는 오늘도 바쁘게 지구를 돌고돈다. 고령의 몸으로 그는 여전히 혼자서 비행기를 갈아타며 3국에서 려권수속도 하며 부단히 움직이고있다. 심장이 가쁠 때면 그는 그자리에 잠간 서서 쉬며 입에 약을 넣고 또 앞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불편한 다리를 끌며 각 지역과 각국의 연구조직들을 돌아본다. 그는 회의도 하고 연설도 하며 때로는 국제연구소와 산하 조직들의 기구문제도 토의하고 그 성원들의 조직문제를 취급하기도 한다.

비슈와나스는 흐르는 세월과 로쇠되여가는 육체에 도전하면서 부단히 걸어갔다.

물결치는 라비강을 헤염쳐건느던 어제날의 혈기왕성하던 소년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을 몇고패나 감고감아 걷기에도 숨가쁜 고령의 나이에 이르렀다.

사람이 일생 청춘으로 남아있을수는 없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나무잎이 그려진 년하장에 젊음의 념원을 써넣군 하지만 세월은 육체를 유한의 종착점으로 싣고가고있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생을 서둘렀다. 젊어서는 젊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렀고 나이들어서는 갈 길이 짧아져 또 서둘렀다.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 힘이 남아있다. 그는 이렇게 자기자신에게 끝없이 속삭이며 또다시 비행기에 오르군 하였다.

매사에 부지런하였으므로 그는 최후의 일각도 성실하게 맞이하려는듯싶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기후와 풍토, 풍습과 전통이 다르듯이 세상에 범람하는 제나름의 철학과 주의주장, 종교적리념과 학파, 당파들을 다 체현하며 그 모든것을 하나의 위대한 뜻, 위대한 사상으로 포섭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세계를 돌고도는 우리의 주인공!

그는 주체의 씨앗을 세계의 토양에 부지런히 심어가고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이였다.

2011년 11월 15일 평양에서 또다시 만난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디아에는 나라를 위해 한생을 바친 자유투사들이 많소. 나는 그러한 애국자라고는 말할수 없소. 하지만 나는 우리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싶어하는 사람이요.

지난 수십년동안 나는 기업을 위해, 주체사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제 시작인듯이 성차지 않소.

나는 아직 하고싶은것이 많소. 오래전부터 나는 기업에서 손을 떼고 오직 주체사상을 위해 전심하고있소. 나는 주체사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분발할것이요. 그것은 주체사상을 알면 얻을것은 많고 잃을것은 하나도 없기때문이요.》

사람이 인생말년에 이르면 보통 새로운 자유보다도 과거의 향수나 걸어온 운명의 길들을 더듬으며 앉아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걸어갈 앞날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조화에 가득찬 아름다운 사상의 화원을 설계하고 후대들이 그 화원에서 뛰놀 래일의 세상을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선생의 정열은 아직 젊은 사람들도 따르지 못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젓는것이였다.

《내 나이 85살인데 언제 갑자기 갈지 모르오. 사람은 누구든 못오는 길로 가기마련이요. 나의 친구들도 이제는 하나둘 거의다 떠나갔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짧소. 하지만 해야 할 일은 깨끗이 하고 가야겠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기 후임을 생각하는것이였다. 그것자체가 전세계에서의 주체사상연구보급에 대해 그가 얼마나 마음쓰고있는가를 말해주고있는것이였다.

또한 그는 각 지역 연구소 전임일군들의 보선문제에 대해서도 다 자기 안이 있는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근간에 각 대륙 연구소들을 부지런히 오가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앞으로의 사업의 활성을 위해 그 일들을 빨리 해놓아야 자기가 마음편히 갈수 있다는것이였다.

생활이란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활동이다.

비슈와나스는 오래 사는것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끝을 훌륭히 맺기 위해 노력하고있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진행할 주체사상세계대회준비를 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김정일**백과전서》 전2권을 편찬발행하였으며 그것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기 위하여 평양에 왔던것이다.

사람은 한생을 돌이켜볼 때 자신의 모든 생명과 정력을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성업에 바쳤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것이다.

마지막순간에 지나온 일생을 떳떳이 총화할수 있도록 비슈와나스는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고있었다. 하루는 저녁에 평가되고 인생은 말년에 평가된다는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다.

문득 나는 비슈와나스란 그 이름에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생활에서는 상대방의 이름의 뜻까지 물어보며 사귀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것은 서로가 이름만 알면 불편없이 사회관계를 맺을수 있기때문이리라.

그래서인지 우리 나라에 수십차에 이르도록 오고 또 그의 나라에 숱한 사람들이 갔으나 그에게 이름의 뜻을 물어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모든것을 알고싶었다. 고령의 육체를 지탱하며 그 누구의 눈치를 봄도 없이 자기가 한번 택한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바위같이 굳센 이 인간에게 그 어떤 뜻이 부여되여있는지.

실례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물어보아야 했다. 아니, 그만큼 대상하였으면 허물할것도 없었다.

이런저런 여담끝에 나는 넌지시 물어보았다.

《리사장선생! 비슈와나스라는 그 이름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는 한동안 침묵속에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잠자코 있었다.

이름은 자기가 짓는것이 아니다.

이름은 부모가 자식에게 붙여주는 념원의 표적이라고 할가.

부모의 그 념원의 표적에는 부모들의 기대와 리상이 깃들어있다.

자기들이 바라는것이 자식들의 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 자손의 이름에 바라는 뜻을 부여하는것이리라.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적특질이 갓 태여났을 때 부모가 이름을 붙여주는 바로 그 순간에 규정되는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것이였다. 얼토당토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사람의 이름을 놓고 그 사람의 성격을 내나름대로 판단해보는 습성이 있다. 그것이 현대어이든, 고유어이든.

하지만 비슈와나스라는 이름은 도대체 내가 그 뜻을 가늠할수 없는 말이였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것이였다.

이윽하여 그는 추억이 어린 눈길을 든다. 그사이 그는 자기 이름의 뜻으로, 다시말하여 선친들의 뜻으로 자기의 한생이 흘러갔는지 돌이켜본것이나 아닌지.

그는 조용히 말했다.

《〈비슈〉는 세계라는 뜻이고 〈나스〉는 주인이라는 뜻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세계의 주인!》

저도모르게 나의 입에서 조선말로 번역된 그의 이름이 튀여나왔다.

아, 그의 이름이 이럴수도 있단 말인가.

《그것은 어느 말입니까?》

서둘러 묻는 나의 말에 그는 뜨직뜨직 대답한다.

《그것은 부다가 날 때 쓰던 말이요.》

부다란 불교의 시조인 석가모니를 말하는것이였다. 즉 그의 이름은 그의 선친들이 고대인디아어로 지은것이였다. 너무나 신기하여 나는 뻔한것을 다시 물었다.

《싼스크리트어말입니까?》

《그렇소.》

고대인디아어가 바로 싼스크리트어인것이다. 일명 범어라고도 한다.

싼스크리트말에는 고대인디아사람들의 불경언어인 베다말과 문학어인 고전어가 속한다. 이 언어로 종교, 철학, 문학, 의학에 관한 서적들이 씌여졌다. 이 언어로 씌여진 종교문헌들과 서사

시, 희곡 등과 첫 문법책(빠니니, B. C. 4세기)이 오늘도 남아 있다고 한다.

서사수단으로만 쓰이고 입말로는 쓰이지 못한것으로 하여 중세기에 이 언어는 죽은 언어로 되였다.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그 말의 뜻을 그 누가 구태여 알려고 했으랴.

비슈와나스는 선친들이 안겨준 그 말의 뜻을 혼자의 가슴속에 깊숙이 묻고 오늘까지 이 세상을 직심스레 걸어왔단 말인가.

솔직히 말하여 사람들은 전세계 사람들의 이름을 합친것보다 자기 이름을 더 중시한다.

빅또르 유고의 평생소원은 빠리를 자기 이름으로 고치는것이였다면 샤르마가문의 평생소원은 세계의 주인으로 되는것이였다.

조상대대의 그 소원이 바로 비슈와나스의 이름에 새겨진것이였다.

아, 인간은 얼마나 오랜 세월 세계의 주인으로 되기를 고대해왔던가.

하지만 질곡과 암흑속에 자기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짓눌려온 인간이였다.

그의 조상들은 노예로 살지 말라는 뜻을 그의 이름에 부여했으리라.

틀림없이 그의 조상들은 머리를 숙이지 말고 주인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라는 뜻을 그의 이름에 부여했으리라.

그래서 그는 인간을 세계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주체사상을 그렇듯 열렬히 따르며 그 한길을 가고있는것인가.

사람은 저절로 세계의 주인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비슈와나스는 말하였다.

《나는 주체사상에 접함으로써 세계의 주인이 되는 길을 깨달았소.

선행한 어느 철학가도 그길을 밝혀주지 못하였소.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가장 완벽하게 밝혀주었고 인간을 세계의 주인으로 되게 하는 길을 밝혀주었소.》

그렇다. 그길을 밝혀준것이 바로 주체사상이였다.

인류가 품어온 세기적숙망에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는 대답하였다.
인간이여, 너의 본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
그것으로 하여 너는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이다!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게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며 사람만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것이다.
이 위대한 진리를 밝혀준 주체사상을 이 세상 그 누가 공감하지 않을수 있으랴.
날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주체의 빛발아래 세계의 주인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활보해간다.
비슈와나스 = 세계의 주인!
그는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살았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따랐다.
그는 마음속으로 항시 이렇게 웨치며 주체사상을 받들어왔으리라.
《나는 세계의 주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오늘에 자기의 이름을 가진것이다.
선친들이 지어준 그 이름은 인류자주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자기 뜻을 빛내일수 있었고 그길에서 자기 가치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을 따르는 길에서는 그만이 아닌 그 누구든 자기의 사회적이름을 가지는것이다.
사람들이여, 내 오늘 진정으로 이 세상에 말하고싶나니 《세계의 주인》!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이름이 되랴.
《세계의 주인》!
이는 내 이름이다.
그대의 이름이다.
인민대중의 이름이다.
이 세상 처음으로 사람, 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 력사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세우고 빛내여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인류에게 안겨준 더없이 고귀하고 존엄높은 이름이다.
그 이름을 지니고 빛내이며 비슈와나스는 오늘도 부단히 걷고있다.

내 마음속의 아름다운 새여
날아오르라, 더 높이
눈부신 해빛이
광활한 미래를 비치고있다

내 마음속의 자유의 새여
더 활짝 펼치라, 나래를
영원한 해빛을 안고
세월의 한끝까지 날아예라
…

일찌기 유년시절에 아름다운 꿈을 안고 판도리비비마을을 떠난 그의 마음속의 두루미는 주체의 해빛을 받으며 세기의 언덕을 넘어 정의와 진리를 구가하며 온 세상을 날으고있다.

시대앞에, 력사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자각한 인간의 힘은 자연의 한계를 뛰여넘고있다.

그는 누구보다 생활을 끝없이 사랑하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기에 그는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가정도, 명예도 다 바쳐 쉬임없이 주체의 궤도를 달려가고있는 것이다.

사람이 늙는것은 누구도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결코 나이로써만 늙은 정도를 측정할수는 없는것이다. 그 어떤 강렬한 사상이 그의 정신을 이끈다면, 그의 가슴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의 물결이 항상 출렁인다면 설사 그의 나이가 고령에 이르렀다 해도 그의 마음은 젊음에 넘쳐 끊임없는 창조의 한길을 걸어갈것이며 그의 생명은 의심할바없이 연장되는것이다.

비슈와나스!

그는 존경이 가는 인간이다.

완강한 의지의 소유자인 그는 지향적이며 활동적이다.

끝없이 앞으로만 걸어가는 그의 인생행로와 더불어 이 이야기는 계속되고있다.

그의 뒤를 따라 그의 자손들이, 후세들이 주체의 궤도를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 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것이다.

인생렬차는 한정거장한정거장, 또 한해한해, 한세대한세대씩 교체되며 앞으로 내달린다.

주체의 궤도를 달리는 인생렬차의 승객들은 점점 차넘친다. 이제는 초만원이 되였다. 그래서 나날이 더 많은 좌석이 늘어나는 인생렬차다.

시발역은 있으나 종착역이 없는 우리의 인생렬차는 행성우의 수십억사람들을 승객으로 싣고 영원한 주체의 궤도를 달리고있다. 그들의 얼굴마다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미소가 비꼈다.

달리자 힘차게 인생렬차여!

주체의 궤도를 따라 영원히!

붓을 놓으며

붓이여, 너를 놓자니
다하지 못한 이야기
내 가슴에 그냥 남아있어
잠 못드는 이 마음

쓰자니 계속 쓰자니
내 마음 따라서지 못해
내 글줄 따라서지 못해
그냥 서성이는 이 마음

내 노래의 주인공들
어제도 오늘도
아름다운 이야기
이 땅에 줄줄이 새겨가거니

여기서 놓아도
마음은 그냥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나의 붓이여

벼리자 무딘 그끝을
이 땅에 울리는 자주의 노래
세월의 한끝까지 영원하리니
어이 너
편히 쉬일 날이 있으리

2011. 11

편집후기

20대 초엽에 서정서사시 《최고사령관과 전사》, 담시 《약속》 등 이채로운 시들을 들고 문단에 등장하였던 인훈은 한동안 잠잠하였다. 젊은 시절 청년동맹일군이였던 그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북부철길건설장으로 달려갔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험산준령을 넘으며 울며 웃으며 수백리로반을 닦아가는 그 나날에 그는 땀젖은 습작집에 《눈보라와의 인사》, 《사로청휘장》, 《그들의 눈길은 어디에 멎는지》 등 청춘과 사랑에 대한 시들을 부지런히 써넣었다.

그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키워준 품은 어머니당의 품이였다. 어머니당에서는 그를 김형직사범대학 작가양성반에서 또다시 공부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었다.

작가양성반을 졸업한 그는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시문학분과위원회에서 다년간 창작과 심의사업을 하였다.

그후 그는 어머니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외국의 학자들과 학술교류를 하는 부문에서 일을 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어제날 해주앞바다에서 물장구치던 소년은 국경을 넘나들면서 고향과 조국의 그리움뿐만이 아니라 누리면서도 다 알지 못했던 민족의 긍지, 지니고서도 다 느끼지 못했던 인간의 존엄을 가슴뿌듯이 안아보게 되였다.

세계정치구도가 크게 변형된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의 력사적 사변들과 어지러운 세월의 그 풍파속에서도 오직 한분 **김정일**장군님을 세계자주위업의 위대한 태양으로 열렬히 따르며 주체의 한길만을 꿋꿋이 걸어가는 5대륙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한것은 그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부로 되였다.

《인생렬차》는 그의 두번째 장편실화작품이다.

그가 알고있는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모든 활동이 그리고 그가 체

험한 모든 생활이 그대로 작품의 소재로 되였고 주제로 되였다.

오늘의 독자들은 실화형식의 글들을 즐겨 읽는다. 특히 주인공이 력사적인물이거나 현시대에 알려진 인물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것은 력사와 현실에 더 민감하게 살려는 현시대 사람들의 높은 사상미학적요구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첫번째 장편실화 《나는 살아있다》는 나오자마자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으며 외국에서 번역출판되였다.

《나는 살아있다》에서는 고아의 운명을 지닌 주인공이 주체의 새생명을 받아안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운명을 개척해가는 과정을 그렸다면 《인생렬차》에서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여난 주인공이 주체사상에 접하여 인생의 철리를 깨닫고 자주위업실현의 길에 나서는 과정을 진실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주체사상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지도사상이라는것을 생활적으로 론증해주고있다.

그의 실화작품들에서 주목되는것은 철학적이면서도 시적인 정서로 충만되여있는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그의 진지한 탐구정신과 생활체험 그리고 다년간 축적되여온 창작경험이 낳은 열매일것이다. 어느덧 50대에 이른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시처럼 살고싶었습니다. 소설처럼 살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처럼, 소설처럼 사는 산인간을 현실에서 찾아 그대로 그리고싶었을뿐이였습니다.》

그는 인간과 생활을 리상화하지 않고 현실에 있는 인간, 실재한 이야기를 통하여 시대와 사회의 본질을 밝히고 우리 생활에 체현되여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실지 소설같은 이야기가 실화라면 그런 글은 사람들의 생활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것이며 그것이 주는 감흥은 실로 이여의 문학작품에 비할수 없을것이다.

철학성과 진실성, 산문과 운문의 유기적인 결합을 지향하는 그의 앞으로의 창작이 기대된다.

편집부

장편실화

인 생 렬 차

저 자 인 훈 편 집 박성보

장 정 최북남, 정철경

편 성 정향애 교 정 박경옥

낸 곳 금 성 청 년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1(2012)년 1월 25일

발 행 주체101(2012)년 1월 30일

ㄱ－16508 값 250원

ISBN 978－9946－21－311－8

끝없는 창공을 향하여
찬란한 광명을 향하여
자유의 공기를 향하여
태양의 빛을 받아
자유의 깃 펼친 새야
날으라 우주의 한끝까지